

보다
BO DA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부평구문화재단

BO DA 2018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07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BO DA 보다

vol.07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은 푸르고 우리들은 자란다



국내 최초 음악도시 부평의 꿈이 피어납니다.

늘 푸른 부평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키가 자라듯 부평구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음악도시 부평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부평의 5월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속살거리는 바람결에 사랑으로 들뜬 나날이었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1년 365일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일을 벌입니다.

주민이 더욱 행복한, 삶의 다채로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음악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푸르게, 때로는 진지하게 부평만이 연주할 수 있는 음악도시 말입니다.

발행인
박옥진

편집인
송종준

편집기획
이선주, 현도연

취재·편집·디자인
Text & Image

발행일
2018년 8월 2일

발행처
(재)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21440

전화
032-500-2000

팩스
032-506-9021

홈페이지
www.bpcf.or.kr



'보다'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평구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부평구문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선



생각



인사이드 부평



머리보다



INFO



04 PEOPLE FROM ART

홀라로 행복을 찾은 사람들,
홀라호누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스페이스>

08 MUSICITY 1

음악도시 부평을 위한
즐거움 상상, 행복한 고민
시민공감회&원탁회의

14 LOOK INSIDE

Celebrating Cities
변화를 기념하라

20 VIEW FINDER 1

우리 동네 옆 도서관
두 번째 이야기

28 VIEW FINDER 4

휘파람 마켓
문화다양성을 보고, 듣고,
이해하다
2018 INCHEON ART BOOK FAIR

32 ZOOM IN 1

낭만을 켜는 현의 주민공
클라라 주미 강 리사이틀

40 ZOOM IN 4

2018 우리 가족
- 토요일N클래식 시리즈
해천추범 표류하는 뚝단배
조선인이 바라본 세계

52 WHAT'S NEXT?

66 INFO

06 PEOPLE FROM ART

부평생활문화센터,
"이 손 안에 있소이다~"
2기 공감프렌즈

10 MUSICITY 2

음악으로 풍성해지는 부평의 동네
2018 부평뮤직데이
'사운드 파크' & '사운드 스트리트'

24 VIEW FINDER 2

행복한 청소년, 재미있는 부평
천의 얼굴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30 VIEW FINDER 5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BP창의경영프로젝트

34 ZOOM IN 2

Sound of Music!
2018 제5회 부평키즈페스티벌

42 ZOOM IN 5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공연
부평에서 독일의 감성을 만나다

57 CALENDAR

12 CULTURE SCENE

음악도시 부평의 성장 파트너!
청년과 함께하는 부평구문화재단

26 VIEW FINDER 3

고정관념을 넘어
존중을 배우다
부평구청청소년문화센터

38 ZOOM IN 3

너의 마음이 보여
연극으로 만나는 이야기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44 NEWS

부평구문화재단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 외



홀라로 행복을 찾은 사람들, 홀라호누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스페이스>

하와이언풍 음악에 맞춰 맨발로 바닥을 사뿐 내딛는 모습과 어깨선부터 손끝까지 섬세하며 우아한 춤사위가 마치 한 마리 나비와 같다. 동호회 '홀라호누'를 이끄는 노마치 유카 선생님은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공간을 제공받아 주 2회 하와이 전통예술 홀라 댄스를 연습한다. 춤을 추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선사하는 홀라와 사랑에 빠진 동호회 '홀라호누'를 만났다.

홀라호누, 사랑과 감사를 그대에게

하와이어로 '호누'는 거북이를 뜻한다. 하와이에서 거북이는 행운의 상징으로 홀라를 추면서 행운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동호회의 이름도 '홀라호누'라고 지었다. 거북이처럼 천천히 움직이지만 멈추지 않는 것, 천천히 발전하는 홀라호누가 되기를 바라는 노마치 유카는 일본에서 홀라와 사랑에 빠졌고, 한국 온 뒤 홀라 댄스와 같은 즐거운 춤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동호회를 시작했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하여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든 동호회는 2018년부터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공간을 제공받아 꾸준히 연습할 수 있었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부평에서

i
홀라호누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동호회 '홀라호누'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홀라를 배우고 싶거나
관심있는 분들은
'부평생활문화센터'로
문의 주세요.

☎
032-500-2069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아요. 저희 팀 회원 수가 많지 않아 다른 팀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지원해드리기도 해요. 함께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준비할 때 공간이 필요한데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최적의 공간이죠"라고 노마치 유카는 말한다. 홀라 댄스는 노래가 하와이어라서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재미가 붙으면 '어떤 내용일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춤이다. 또한 우쿨렐레나 이프(타악기)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는 것도 홀라의 매력이다. 사람들은 자세를 낮춘 기마자세에서 춤을 추는 홀라 댄스가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는데 그 고비만 넘기면 즐기며 춤을 출 수 있다. 이러한 고비를 넘기고 홀라의 매력에 빠진 홀라호누 회원들은 송도, 신도림, 광명, 시흥 등 먼 곳에서 이곳 부평까지 달려와 홀라를 배운다. 홀라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들의 홀라 사랑은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의 춤, 홀라

동호회 홀라호누를 이끄는 노마치 유카는 홀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녀가 말하는 홀라는 '나는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해주는 춤이다. 홀라를 접하기 전에는 체형도 엉망이었고, 자신감이 없었다고. 홀라를 하면서 자세 교정과 다리에 힘이 생겼고 더욱 욕심을 내서 몸을 가꾸어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홀라 댄스는 하와이의 전통춤으로 자연에 대한 감사와 사랑, 존경을 춤이라는 언어로 나타내며, 내적인 감정을 수화로 표현하는 춤이다. 즉 홀라는 하와이의 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홀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노마치 유카.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다 보면 보는 사람도 즐거워진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이러한 홀라의 즐거움은 요양원 등의 봉사활동으로도 이어졌다. 홀라호누는 어르신들이 홀라 춤을 보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무대에 올라 사람들에게 최고의 호응을 받았던 홀라호누 동호회는 홀라 댄스의 보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본다면 홀라의 묘한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다.

INTERVIEW



이인혜 ①

동창(박영주)이 홀라가 너무 좋다고 같이 해보자고 권유했는데, 유카 선생님이 홀라에 대한 열정이 많으셔서 너무 열심히 홀라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 너무 좋았고, 또 홀라가 가슴에 울림을 주는 음악이 많더라고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홀라는 나이 드신 분께 정말 추천할 만한 운동이자 춤이에요. 천천히 온몸을 쓰는 춤이기 때문에 온몸의 근력을 키워줄 수 있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홀라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사랑과 행복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류은혜 ②

워크숍에서 처음 유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수화를 하는데, 홀라가 하와이 수화라는 이야기에 관심이 생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홀라는 운동도 되지만 풍물 등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목표로 함께 단합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홀라 뜻이 알로하, 서로 협조하는 마인드가 담겨 있고, 하와이 정신이자 언어의 댄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홀라호누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동호회로 그 중심에 유카 선생님이 계시고 저희와 잘 어울려져 홀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영주 ③

유카 선생님의 춤이 너무 아름답고 장점도 많더라고요. 선생님께 1년 넘게 배우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홀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제가 몸치라 더욱 열심히 연습했고, 이제는 요양원에서 봉사 공연도 할 정도의 실력이랍니다. 1년 동안 홀라를 배우며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를 느끼고 나니, 중년의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부평 생활문화센터, “이 손 안에 있소이다~”

2기 공감프렌즈

오늘도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은 부평구민의, 부평구민에 의한, 부평구민을 위해 존재한다. 언제라도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누고 재능을 일깨우고 생각을 전하는 부평시민들의 창작공간, 휴식공간, 학습공간이기에. 특히 연륜 총만하신 시니어 사회공헌활동자들이 서포터로 활동하시기에 ‘오래된 미래’ 같은 다면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8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기관(일터와 사람들)의 참여기관으로 ‘공감프렌즈’를 운영 중이다. 현재 공감프렌즈 2기가 활동 중이며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2교대로 부평아트센터 및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내 사회공헌활동가 6명이 배치되었다. 2기 공감프렌즈들은 하나 같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이며 더 도전적이다. 그들에게서 근면과 노련함 그리고 부평에 대한 사랑을 배워본다.



직접 와 보면 입 벌어지는 곳

● 이순애

“젊어 보인다고요? 제가 좀 동안이예요.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일하다 보니 마음이 더 젊어진 것 같아요. 활동하기 좋아하는 편이라 언제나 생기가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어떤 일이고 책임을 맡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곳은 동사무소 두레마를 봉사단으로 일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낸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경력이 모자랄 것 같아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찾아보니 자격증, 수료증 등이 꽤 많았어요. 다행히 공감프렌즈로 뽑히게 되니 이곳이 더 애착이 가네요. 아침에 출근하면

시설 정리정돈 하고, 방문하는 구민들 관리도 하고 소탈한 일상의 역할을 담당하지요. 이곳은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곳인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쉬워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야겠어요. 어쩌다 누군가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오게 하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활동하면서 동아리들이 모임도 하고 전시도 하는데 그들을 보면 항상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이를 먹는 것과 상관없이 힘 닿을 때까지 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 꼭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어요. “부평구민 여러분~ 부평생활문화센터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 것 아직 모르신다면 직접 와 보고 체험해보고 활용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재능기부를 한 경험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여기의 일은 힘들지 않아요. 찾아온 구민들께 대관시 안내 사항 설명해주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카페 정리로 마무리를 하죠. 대관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나 애로사항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일도 하고요. 집이 가까워서 도보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간이 활성화되기를

● 윤수태

출근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청소 좀 하고 유리창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평생활문화센터 내 카페는 음료를 판매하지 않지만 언제라도 맛있는 차를 가지고 오셔서 자유롭게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바리스타 강의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았는데 올해는 카페가 좀 조용하네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자유롭고 쾌적한 무료 공간에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기도 좋아요.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면 분명 인기폭발일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곳 부평생활문화센터에 대해 심터로 이용하면 좋다고 많이 홍보합니다. 좋은 공간이고 아늑하고 모임방도 있으니 커피나 간식을 가지고 오셔서 쉬고 독서하고 대화하며 활용해주십사 알리고 다닙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주민들과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에 오시면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음악도시 부평을 위한 즐거운 상상, 행복한 고민

시민공감회&원탁회의



지난 3월,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음악도시 시민협력단 부평뮤즈 (아카이빙 분야)' 발대식을 가진 후 지난 5월 4일,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음악도시 부평 시민공감회&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시민공감회&원탁회의>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1월, 1차 원탁회의에 이어 오프닝 공연과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총괄기획가의 음악도시 부평의 미래 비전 공유 순서를 추가해 진행되었다. 이번 원탁회의는 음악도시 부평의 주요 사업을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오프닝 공연으로 재즈피아니스트 이한얼과 베이스리스트 오재영이 'All of me', 'St. Tomas', 'Wave'를 연주했고 재즈피아노의 흥겨움과 베이스리스트의 묵직한함이 잘 어우러지는 환상의 무대를 연출했다. 연주가

끝나고 토론을 위해 최정환 총괄기획가가 사업 방향성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부평음악도시의 전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음악도시 부평의 미래 비전을 짚어나가는 데까지 언급했다. 부평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였던 에스컴은 한국으로 들어온 미군의 자대배치 장소였고, 미군 부대의 물자를 조달, 생산하는 역할을 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로큰롤부터 세계 유명한 팝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최신 악기, LP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12개의 미군 부대 클럽과 23개의 민간인 클럽을 통해 다양한 음악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최정환 총괄기획가는 음악 친화적인 생활 문화와 장소를 기반한 음악 콘텐츠 개발, 음악과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음악도시의 경관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의 젊고 개방적인

음악도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공감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악콘텐츠의 확대와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는 등 평소 거주하고 있는 마을, 부평의 내재적 힘을 어떻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지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주요 사업에 대해 앞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의견과 뮤지션들이 마음껏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시민공감회 & 원탁회의>는 올해 하반기 9월, 11월에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민들과의 회의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고,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공감하며 부평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6가지의
육성 사업



시민문화
주민주도의
음악도시 구축



아카이빙
역사적 가치 재발견을 통한
부평의 정체성 확보



음악동네
일상의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개발
다양한 계층이 즐기며
소통하는 음악 콘텐츠 개발



음악교육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는
대중음악 창의 교육 개발



음악 산업
뮤지션들의 공간적, 경제적
음악 생태계 구축



음악으로 풍성해지는 부평의 동네 2018 부평뮤직데이

‘사운드 파크’ & ‘사운드 스트리트’



그곳에 가면 누구나 행복해진다. 부평의 동네 곳곳에서는 음악과 웃음이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의 음악동네 사업으로 ‘2018 부평뮤직데이’를 개최했다. 2018 부평뮤직데이는 2016년 ‘뮤직타운-음악동네 만들기’, 2017년 ‘BP뮤직데이’에 이어 진행되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음악동네’ 사업이다. 올해는 부평역뿐만 아니라 부평공원을 추가해 작년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했다.



부평뮤직데이는 인천 및 부평의 뮤지션과 동호회, 문화예술 단체, 청소년 등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물어 누구나 버스킹과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어쿠스틱, 재즈, 힙합, 클래식 등 음악 장르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부평뮤직데이는 5월 22일 화요일 석가탄신일에 부평공원과 그 일대에서 ‘사운드 파크(Sound Park)’가 개최되었다. 이날 공연에 참여한 팀들은 인천콘서트챔버, 송하철첼렛, JJS BAND 등의 인천 및 부평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뮤지션들로 인천콘서트챔버의 클래식 음악 공연 이후 송하철첼렛은 재즈 색소폰과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어우러진 재즈곡을 연주했다. 엘스커피에서는 피아노와 기타, 보컬이 함께 연주하며 공연을 진행했으며 공원 인근에서는 플리마켓도 함께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은 버스킹과 실내 공연(카페, 서점, 재즈펍 등), 아트마켓으로 구성되었고 인천 및 부평의 뮤지션과 동호회, 문화예술 단체, 청소년 등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물어 누구나 버스킹과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어쿠스틱, 재즈, 힙합, 클래식 등 음악 장르의 제한도 두지 않았다.



6월 30일 토요일에는 ‘사운드 스트리트(Sound Street)’가 부평지하상가 중앙홀과 부평문화의거리 무대, 창고 재즈펍, 씽크빅문고에서 재즈, 클래식, 어쿠스틱부터 힙합 공연까지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오는 8월에는 5월, 6월에 진행된 지역과 부평구청 인근 굴포천 먹거리타운까지 포함한 ‘2018 부평뮤직워크’를 개최한다. 3개의 지역을 부평 음악동네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하여 부평 전역으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1950~60년대 미군 부대 애스컴(ASCOM) 주변으로 라이브클럽이 성행했던 위치의 부평공원 일대, 아시아에서 단일 건물 최다 지하상가 점포 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부평역 지하상가, 최근 독특한 카페들이 생기면서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평리단 길과 굴포천 먹거리타운 등 소비 중심의 패러다임을 문화와 음악으로 재편하면서 음악도시를 상징하는 주요 장소를 뮤직데이의 무대로 선정했다. 부평뮤직데이는 부평의 음악 잠재력을 일깨워 음악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음악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음악도시로서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음악도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악도시 부평의 성장 파트너! 청년과 함께하는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는 것에 나아가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구민들의 의견이 재단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창의적이고 에너지 있는 청년들의 가치를 조명하고 그들의 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청년의 손을 잡고 동반성장을 꿈꾸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사업을 소개한다.

글 마케팅팀 이선주

청년이여, 창작하라

부평구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지역의 시각 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평영아티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작가들을 모집하고 두 번에 심사를 거쳐 올해의 부평영아티스트 5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가들은 수상작 전시 기회를 가지게 되고 전시 기간에 관람객들의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POP Prize 1인으로 선정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최종 선정된 POP Prize 1인은 다음 해 개인전 기회가 주어진다. 관람객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한 작가 선정제 도입은 여타 다른 공모전과 다른 차별점으로 인정받았으며 수상자를 위해 개인 전시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문화재단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었다. 앞에 소개한 부평영아티스트가 시각 예술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부평영크리에이티브>는 전시를 큐레이팅하는 큐레이터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사전에 부평의 십정동, 열우물과 같은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제시하고 전시내용과 공간연출방법들을 서류로 받아 심사하여 당선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당선자에게는 부평아트센터 기획 전시를 큐레이팅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부평영아티스트>와 <부평크리에이티브>는 작가와 기획자를 세분화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청년이여, 꿈꿔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구축되면서 이를 활용하고 창조적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 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꿈과 열정을 키우고자 하는 청년들이 생겨나면서 공연 무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 현업에 생생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이를 연결하는 매개자로 현직 프로들에게 직접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청년에담>을 기획하였다.

청년에담에서는 기획, 마케팅, 음향, 조명, 무대



부평구문화재단은
청년을 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아닌
이끌어가는 기획자로
양성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치고 있다.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분야별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특히 인천·서울의 공연장 기술 감독들이 강사가 되어 기초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실현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청년이여, 함께 즐겨라

부평구문화재단은 청년들과 함께 부평을 바라보고자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을 기획하였다.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은 청년 기획자와 눈높이를 맞추어 지역의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국악 콘서트, 워크숍, 독립잡지, 마켓을 진행하였고 올해는 부평의 매력적인 공간을 찾아내어 직접 체험한 후 공간 사용 설명서를 온라인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선배기획자들에게 조언을 듣고 지역문화공간을 탐색하는 '상상탐구생활'을 함께 진행한다. 청년들이 문화 활동을 통해 부평에 애정을 갖고 생기를 불어넣게 되길 기대한다.

청년이여, 성장하라

부평 음악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BP음악산업아카데미>는 대중음악과 관련된

음악산업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17년도에 이어 18년도 2기 교육생을 모집하였고 3개월 동안 12주 과정으로 음악투자 및 유통, 음악마케팅, 음악서비스 플랫폼, 음악사업기획, 음악정책, 음악매체 기획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급변하는 플랫폼에 맞추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업이 음악산업인 만큼 음악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BP음악산업 아카데미는 기존 음악 실연자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아카데미 커리큘럼의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부평이 음악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조건인 소프트웨어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창의적인 발전과 지속력 있는 생명력을 위해 지역의 숨은 인재들을 이끌어내고, 청년 기획자들과 예술가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청년을 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아닌 이끌어가는 기획자로 양성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앞서 실천한 청년 사업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발전하여 다채로운 지역문화생태계가 확립되길 기대해본다.

- 1 부평영아티스트
- 2 부평영아티스트
- 3 청년에담
- 4 상상프로젝트 '여류환생학교'
- 5 상상프로젝트 '어피디 공연'

LOOK
INSIDE

Celebrating Cities

변화를 기념하라

글 구영민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006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의 대 주제는 '도시(Cities)'였다. 그 뒤에 '건축의 사회적 역할'이 부제로 붙었다. 같은 해 세계 건축가연맹(UIA)에서 주관했던 국제현상의 주제 역시 전년도에 이어「Celebrating Cities」였는데, 직역하자면 축제나 기념, 칭송 등의 의미에 붙여 '축제의 기분에 젖어 쾌활하게 법석거리는 도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언외에는 '품격 높은 인간의 삶을 위한 도시'의 뜻이 배어 있었다. 당시 건축전시회의 총감독을 맡았던 리처드 부르데트(Richard Burdett)은 인사말에서 2006년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집계된 의미 있는 해라고 밝히고, 이는 100여 년 전 10%에 해당하던 도시 인구가 다섯 배로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유엔은 2050년도까지 세계인구의 75%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곧

20세기 후반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도시'에 대한 신중한 경고였다.

●

2006년도 당시는 도시의 존재 자체가 글로벌담론의 변화(繁華) 속에서 투기적 공간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였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세계의 위대한 도시(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그리고 미국)들은 상당 부분 물리적으로 파괴되었으며, 인구의 감소와 경제활동의 침체로 인해(특히 부의 분배 측면에서) 도시는 그 주요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세계의 도시들은 글로벌리즘의 열풍을 타고 탈산업화와 대도시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규모의 도시 프로젝트와 활동 영역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장소로서의 도시구축에 혈안이 돼 있었다.

●

사실 '도시재생'의 전략이 세계화 열풍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오늘날 도시계획의 중심 의제가 돼버리다시피 한 건 그리 오래지 않다.● 하지만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황폐화된 물리적 구조물을 개선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사한 노력은 1950년대 이후 10년 터울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익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대안으로 비치기도 했다. 더욱이 오늘날 첨단문화도시, 전통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 등 모든 도시가 내걸고 있는 재생의 지향점이 '문화'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래 문화도시란 무엇이고, 최근 국가정책으로까지 추진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란 무엇인가.

●

안타깝게도 문화도시 선언은 우리네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1985년 6월 13일 유럽연합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멜리나 머리쿠리(Melina Mericuri)가 유럽연합에 문화도시 선정을 제안하였고, 이후 유럽연합은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매년 1개 도시 이상을 문화도시로 선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당시 문화도시의 선정기준을 보면, 작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유럽에서의 문화도시 선정기준은 도시의 미관이나 문화적 보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공적 인프라 차원에서 도시가 얼마나 인간을 중심으로 계획돼 있으며, 얼마나 지역적 특징과 색깔을 띠고 있는가에 있었다.● 다시 말해, 문화도시란 특정 이벤트가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정책과 실천이 이뤄지는 '장소'이며, 시민들의 일

●

장영, 『수복의 개념으로서 도시재생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 9~10

●

라도삼, 『지속가능한 성장과 문화도시』, 민예총 "민족예술" 2004년 11월

●

김동완, 황은정, 『도시재생의 빛과 그림자』, 한국정책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13권 1호

●

최진석, 『확장한 사유의 시선』, 21세기북스, 2017 p. 134-138

상적인 삶과 도시공간이 조화롭게 구조된 유기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의 문화도시정책은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의 근본적인 변환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단지 세계화의 한 귀퉁이에 서 '문화(또는 문화라는 이름)'를 이용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언제나처럼 서구의 전술적 단면만을 수입해 와서, 문화적인 무언가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단편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관광산업에 초점을 둔 전통의 발명, 유행에 따른 공간 구축으로 인한 무장소성의 도시 창출, 지나친 경쟁과 बे끼기로 소득증대나 고용 창출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의 주인공인 인간을 위한 고품격 삶의 성취에 대한 실패 등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심판 배사(好心办坏事_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음)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와 문화에 대한 우리네 근본적인 사고를 점검해봐야 한다.

●

도시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며, 인류 문명의 꽃이다(도시의 승리 E. L. Galeser). 여기서 문화와 문명, 그리고 문화와 도시의 관계를 우리식으로 정리해보자. 최진석 교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자연의 세계 위에 무늬를 그리고, 무늬를 그리면서(또는 변화된 무늬를 통해) 자연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통틀어 '문화(文化)'라 하고, 문화적 활동의 결과로 눈앞에 분명히 세워진 다양한 물리적 현상들을 문명(文明)이라 한다.● 도시도 문명의 한 줄기로 이해한다면, "문화도시"는 인간의 '생각'과 그로 인해 빚어진 '물질'이 합쳐진 단어다. 그 안에서 가능태(dynamis)와 현실태(energeia)의 끝없는 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인문(人文-인간의 무늬 또는 동선)'을 바탕으로 '창의'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인간의 지적(知的)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읽고 포착하는 능력(지성), 인간이 그리는 무늬에 대한 꿈(상상),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판단(통찰)을 거쳐야 비로소 새로운 곳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창의)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 중심의 도시건, 창조도시 건 간에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도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정한 개정도시계획법(2001년)은 문화와 도시에 대한 근본 철학을 간과하

고 있음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특정 도시를 일정한 과정과 경로의 결과물로서보다는 성취해야 할 목표로 간주하는 이율배반에서 출발하고 있다.

● 1980년 이후부터 구미 선진국에서 꾸준히 진행돼 온 도시재생사업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파리와 같은 유럽 대도시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영미의 주요 도시는 낙후된 도시를 재개발해 고급 주택화(gentrification)하거나 문화 공간을 삽입하더라도 자본의 이윤추구 논리가 명확했던 반면에, 같은 기간 파리에서는 시와 (사회당)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었으며 주로 문화 예술 공간의 확충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생산과 소비, 판매와 이윤이라는 집단적 객체로부터 '교환'의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의 부활이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계층이 집단으로 모여 살게 되면서, 그들이 구축하는 공동체 역시 개개인의 특이성(singularity)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지식 분야를 공유하는 사회, 즉 집단지성의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양한 공유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주목할 점은 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개인들이 필요 정보를 축적하고 교환하는 근본적인 공유 공간, 즉 '커뮤니티(community)' 또는 '플랫폼'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공간은 비가시적이고 가변적이며 또한 유동적이므로 시범도시라는 틀에 가둬 놓고 이들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우리네 경우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갖추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도시재생을 시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도시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적당히 배합하여 문화 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술가'들을 끌어들이고, 도시의 확장과

**문화도시란
특정 이벤트가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정책과
실천이 이뤄지는
'장소'이며,
시민들상적인
삶과 도시공간이
조화롭게 구조된
유기적 공동체이다.**

함께 탈산업화돼 가는 도시 외곽의 공장 지대를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며 부동산 가치 상승도 유도하고자 했다. 대개의 경우, 서구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콘텍스트에 짜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프로젝트 자체를 성립시킬 만한 철학적 동기 없이, 전술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특히 산업유산이나 공장 지역의 유휴지를 이용하여 문화 예술 단지로 전환시킨다는 계획 역시 대부분 목표 중심적 접근이었기 때문에, 이웃하는 커뮤니티와의 접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자. 우선 그랜드 프로젝트(Mitterand Grand Projects)를 통해 1980년대부터 시작된 파리의 도시재생은 루브르 박물관 정비, 버려진 기차역 건물을 활용한 오르세 미술관 건립, 낙후된 19구를 재생한 라빌레트 과학 공원과 음악원, 외곽으로 분류되었던 13구에 건립된 국립도서관 등으로 프랑소와즈 미테랑 대통령의 파리재생 사업이 일단락 지어졌다. 이 사업들은 거의 30여 년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이때 조성된 각종 문화 공간은 문화도시 파리의 오랜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정체성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 하이라인파크로 종결되는 미국 뉴욕의 미트패킹과 첼시마켓 지역 등은 성공적 문화도시재생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 특히 뉴욕의 미트패킹과 첼시마켓은 웨스트사이드 철로와 함께 거의 30여 년의 고찰과 연구를 통해 최근에야 완성된 프로젝트로서 뉴욕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장소성에 대한 경외심이 그대로 묻어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역에 대한 애착



애틀랜타 벨트라인의 도보 네트워크

과 자부심을 가진 주민과 상점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아우라와 장소성이 고스란히 지켜졌다는 점은 각광 받을 만하다. 정책이나 지침에 개입치 않고 무엇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도시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다는 평이다. 또한 30여 년 동안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었던 철로는 도시의 테라스로서 제 역할을 찾게 됐는데, 뉴욕시의 외곽 경계로서 허드슨강과 뉴저지의 경관을 제대로 조망하며 걸어 다닐 수 있는 선형공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명물이 된 것이다.

● 마지막으로 미국 애틀랜타시의 벨트라인(BeltLine)은 최근 미국 내에서 가장 야심 찬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꼽힌다. 조지아 공대의 한 대학원생의 논문이 사업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부터, 풀뿌리 시민단체, 기업, 시정부와 정치집단, 그리고 지역 주민공동체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기까지 사업 자체가 집단지성, 협력적 공유사회의 표본이 되고 있다.

● 애틀랜타는 파리나 뉴욕과 달리, 문자 그대로 포괄적인(generic)의미에서의 도시다. 즉, 근대화와 세계화라는 시간적/공간적 추동력에 끌려가고 있는, 동시대의 거대도시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익명적 지역성에 근거한 도시(generic city)다.● 이 환형의 도시벨트는 도심과 외곽 공업지대를 아우르고, 자연과 지역, 그리고 도심과 외곽을 통합하면서 좀 더 지속가능하고 이웃 간의 긴밀한 상호연결성, 그리

● 『집단지성(L'intelligence collective)』의 저자인 레비(Pierre Levy)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협력 방식을 통해 지식을 공동 생산하고 호혜(互惠)적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지식 공간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이상적 사회의 도래를 집단지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피에르 레비, 『집단지성-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L'intelligence collective)』, 권수경 역, 문학과지성사, 2002.

● OMA, Rem Koolhaas, Bruce Mau, S,M,L,XL, The Monacelli Press, 1995 p. 1249-1250

● 최진석, 경계에 흐르다, 소나무, 2017 p. 80-84

고 생태환경이 개입된 도시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이들 역시 2030년까지의 전략 수행계획을 세워 놓고, 주민공청회나 커뮤니티 토론회 등을 통해 고급화(gentrification)와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 기존 거주인 유출 등의 우려 및 지속적인 문화적 생산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다.

● 이들 사례는 확실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단 도시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적어도 30여년의 긴 여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도 만들어 가는 중이다. 도시는 시대의 기록인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그린 무늬이며 동선임을 가르쳐 준다. 또한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성취보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지성의 수준 고양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전문 집단들이 모여 해당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 지리적 고찰을 도모함으로써 공간적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배울 수 있다.

● 2006년도 제10차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이후, 유엔 해비타트(UN-Habitat)가 발표한 『2008~2009년 세계도시 보고서』에는 '조화로운 도시' 개념이 언급되고 있다. 공간적 조화, 사회적 조화, 환경적 조화 그리고 격조 높은 인간의 삶을 위한 도시개발을 주도하는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 한자어 조화(調和)는 균형(均衡, balance)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두 단어 공통적으로 "골고루"라는 말을 함의하고 있다. 이쪽이나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경계에 머무르라는 충고다. 그래야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며, 변화(문화)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되면 말고'식의 배짱을 부릴 여유는 더 이상 없다. 도시는 결국 시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구영민은 인하대학교 건축과에 재직하며 교육과 실무, 그리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초빙교수 및 교환 교수로 활동, 국내-외에서 실무를 진행하며 페이퍼 아티팩터를 통해 이론을 토대로 한 창작 및 국내외 해외 등지에서 전시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건축설계교수회 회장, 대통령소속국가건축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인천건축재단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 작품집으로 'Poetics of Crack(s)', 'Machine in the Garden', 'Urban Pagoda' 등이 있으며, 2006년 UIA 공모전 제4지역(아시아/태평양) 대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흙의 다이얼로그>, <Imageable Plateau>, <Refuge_인천 건축가 30대의 꿈>, <건축사이로>, <인천재발견>, <왜 다시 인천인가?>, <여주 수녀원> 등이 있다.

뉴욕 첼시 마켓 Chelsea Market



뉴욕 미트패킹 Meatpacking



뉴욕 High-Line Park





2018년 부평문화재단은 더없이 주민과 함께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언제라도 들러 실 수 있도록 부평아트센터의 문도 더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음악도시 부평으로 자리하기 위해 부평의 문화계는 함께 모여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음악으로, 생각으로, 스토리로 더욱 흥미진진했던 2018년 상반기 부평문화재단의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Viewfinder

- 우리 동네 옆 도서관 두 번째 이야기
- 천의 얼굴 부평구청소년수련관
- 고정관념을 넘어 존중을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 휘파람 마켓 2018 INCHEON ART BOOK FAIR
-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BP창의경영프로젝트

Zoom In

- 낭만을 켜는 현의 주인공 클라라 주미 강 리사이틀
- Sound of Music! 2018 제5회 부평키즈페스티벌
- 연극으로 만나는 이야기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2018 우리 가족 - 토요일N클래식 시리즈
- 도이처방송 오케스트라 공연 부평에서 독일의 감성을 만나다

News

- 부평구문화재단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 외
- 부평이 부르는 5월의 노래 <2018 부평 솔아솔아 음악제>



VIEW
FINDER 1

우리 동네 옆 도서관 두 번째 이야기

부평기적의도서관, 삼산도서관, 부개도서관에 이어 부평 주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평구립도서관 세 곳을 소개한다.

부평만의 특성화된 전문 도서와 차별화한 프로그램으로 소문이 자자하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알짜 도서관, 지금 만나보자.

1

부평구립도서관의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부평구립도서관 6개 관에서는
예술, 영어, 환경과 생태, 사회과학,
가정·육아, 다문화 분야 등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 구매비의 10~15%를
특성화 도서 구매에 사용하고,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의 전문성
강화, 타 도서관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문화 특성화 도서관 청천도서관



2013년 4월에 개관하여 다문화 사회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다문화 특성화
도서관이다.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유아방,
멀티동화방, 문화아지트, 2층에는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다목적실, 쉼터(휴게 공간)를
갖추고 있다. 청천도서관은 급속도로 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발맞춰 조금은 다른 우리의
이웃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도서관 프로그램 중 '독서문화
콘텐츠'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하나 된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매년 개최되는
<세계문화축제>는 청천도서관의 대표적인
다문화 프로그램. 지역의 이주 여성이 주체가
되어 모국의 문화를 알리고 주민과 하나 되는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이밖에도 <이야기 보따리> 재능기부 프로그램,
<유물 유적으로 보는 한국사 이야기>,
<패션으로 보는 인문학 이야기>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알차고 흥미진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23 — 운영시간 월 휴관 / 화-금 1층 어린이자료실 09:00~18:00, 2층 종합자료실 09:00~22:00 / 토-일 09:00~18:00 — 문의 032-330-9171-3 — 홈페이지 www.bppl.or.kr

2011년 개관한 갈산도서관은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으로 1층 어린이 자료실, 2층 초등 및 성인 자료실, 문화 아지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산도서관은 사회과학 특성화 도서관으로 경제, 정치, 인성,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소 어려운 사회과학 분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갈산도서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 놀면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 주제 관련 도서를 읽어주고 퀴즈를 통해 복습까지 되는 일거양득의 탄탄한 구성을 자랑한다. 유아기부터 경제관념을 쉽게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인 <6~7세 경제를 알아야 할 나이>

바른 인성을 기르고 타인과 더불어 즐거운 삶을 위한 품성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인성과 함께하는 그림책>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외부 공모 사업 또한 사회과학 분야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온 가족이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강연도 들을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이 인기다. 아빠와 아이는 책 놀이를, 엄마는 책과 관련된 소품을 만드는 데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아빠와 엄마, 아이가 함께 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밖에도 강연, 탐방 등 사회과학에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과학 특성화 도서관 갈산도서관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54 — 운영시간 월 휴관 / 평일, 주말 09:00~18:00 — 문의 032-362-0261~2 — 홈페이지 www.bppl.or.kr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66 — 운영시간 월 휴관 / 화-일 09:00~18:00 — 문의 032-505-1131~2 — 홈페이지 www.bppl.or.kr

가정·육아 특성화 도서관 부개 어린이도서관



올해 개관 7주년을 맞이한 부개어린이도서관은 주민의 독서습관 정착 및 도서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3층에는 영유아종합자료실, 멀티동화실 및 문화아지트가, 4층은 초등, 일반종합자료실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어린이 전문 서적은 물론 육아, 태교, 임신 관련 도서가 풍부하여 초보 부모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일반

도서 외에도 아이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길러줄 수 있는 부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를 위한 형견도서관 '꾸러미도서관'과 물에 젖지 않는 '목욕책' 등이 가장 인기가 좋다. 도서와 함께 꾸러미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일부 제외) 부개어린이도서관에서는 편안한 분위기도 부개어린이도서관만의 특징이다. 도서관에 마련된 '생각나무'는 기저귀를 갈거나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편의공간으로 엄마와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도 놓칠 수 없다.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개최되는 <부개어린이도서관 가정의 달 특별 행사>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왕초보 엄마의 육아레시피(영유아)> 프로그램으로 왕초보 엄마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올해는 <동요랑 놀아요(영유아)>, <도서관 속 창의과학(초등)>, <부모육아 교육(성인)> 등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복한 청소년, 재미있는 부평 천의 얼굴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모습

부평의 청소년은 얼굴빛이 다르다. 고민도, 꿈도, 재능도 펼칠 수 있는 그들만의 아지트가 있기 때문이다. 부평구 관내 유일한 청소년수련활동 전문기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이 바로 그곳. 부평구청소년수련관(주정연 관장)은 문화, 인문활동 등 총 12개 영역에서 40여 개의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심신 수련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 등 전문적인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 있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학교 등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교연계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전문기관으로서의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본인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청소년수련관'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선물 같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프트'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프트'는 부평구 관내 9~24세의 청소년 15명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활동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청소년 눈높이에서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을 모니터링한다. 또 회의집행법, 리더십 등의 교육을 받으며 다른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수련관을 알리고 청소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제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에 모집하며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청소년으로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바란다.

'한꿈+더하기'

부평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부평의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행복한 꿈을 꾸다. 부평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한꿈+더하기'는 지역사회 공적서비스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 모습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내 1층에 위치, 연간 운영 중이다. 부평구 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4~6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 및 생활관리 등의 종합서비스를 지원해 다채로운 학습, 전문체험, 자기개발활동, 동아리 및 토요체험 등에 참여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통한 성장과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귀가 지도, 석식 제공, 생일 파티 등을 지원해 청소년들의 방과후 삶을 제공, 긍정적 성장, 변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나도 영상미디어 전문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센터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센터는 수련관 2층에 자리하고 있다. 부평구 청소년들을 위한 영상미디어교육, 시설 사용 및 장비 대여 등 청소년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전문 장비를 갖춰놓고 있다. 방송용 캠코더 9대를 비롯 와이어나리스(방송용 무선마이크), 삼각대, 반사판 등 영상제작을 위한 기본 장비들뿐만 아니라 콘덴서,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 음성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도 구축되어 필요에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영상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인문학, 영상제작워크숍, 전문프로그램(프리미어, 포토샵 등) 활용 등 특성화된 교육이 가능해 영상미디어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손과 머리가 즐거워지는 곳,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창의공작플라자

4차 산업혁명의 바탕이 되는 STEAM·메이커스 활동을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부평에 있다. 손으로 먼저 느끼고, 머리로 그 원리를 이해하는 즐거운 체험이 있는 곳.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창의공작플라자가 바로 그런 공간이다. STEAM·메이커스 활동은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s(인문/예술)', 'Mathematics(수학)' 교육이 융·복합적으로 이뤄져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를 통해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013년 개소한 창의공작플라자는 2012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이 합작한 특성화 공간으로 올해로 5주년을 맞이했다. 창의공작플라자는 우드피아, 테크피아, 씽크피아, 퓨즈피아의 총 4개 공작체험공간으로, 목공, 기계공작, 창의과학, 도예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창의공작플라자는 1년 내내 상시운영되며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부평 지역 청소년과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창의공작플라자 중
씽크피아, 우드피아 활동 모습

활동문의 032-500-2200
홈페이지 www.bpy.or.kr
주소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76
삼산체육관역(7호선) 3,4번 출구





VIEW
FINDER 3

고정관념을 넘어 존중을 배우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며 확장된 사고로 성장하고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고민과 궁금한 것이 많다. 요즘 미투-위드유 관련하여 스쿨 미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시점에 성인지적인 관점의 교사와 불평등하고 성 차별적인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만 한다. 이러한 때에 성과 성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 활동과 교육,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 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성 역할 고정관념을 넘어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11월에 개소하여 부평구문화재단 위탁 운영으로 부평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이정호 센터장)는 교육, 문화, 조직 활동, 성 상담, 네트워크 사업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교육관 성교육, 청소년동아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인력풀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젠더적 성 차별을 탈피하고 성적 자기 존재로서의 성장을 돕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정호 센터장은 “하지말라는 어둡고 부정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긍정성을 갖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장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INTERVIEW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은영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문 강사

● 학교의 외부 교육 중에 학생들이 가장 반기는 교육으로 성교육이 손꼽힌다.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결핍으로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청소년은 극히 드물다. 다만, 몰라서 상황에 휩쓸려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고 빠져 나올 수 없는 경우가 흔했다. 청소년이 유일하게 가감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이 성교육 시간이기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정확한 지식, 가치관의 혼란기에 자기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고 들어주는 어른과 마주할 기회가 이 시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조세정

청소년성문화동아리 회장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 손으로 만든 연간계획한 활동들을 하나하나 해 나갔을 때의 뿌듯함이었다. 항상 1월이 되면 저희는 연간계획을 세우는데 1년간 뭘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면서 채웠던 계획들을 해 나가면서 만족감을 얻었다. 매 활동이 끝날 때 다같이 소감 나누기를 하는데 모두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된 점은 전에는 무심코 넘겼을 상황들을 이제는 성차별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고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 나를 가끔 발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맘친'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맘친(마음이 통하는 친구)을 하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건강한 성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정말 값진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이연수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문 강사

●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에게 가해졌던 무수한 억압과 차별, 폭력은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사회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임은 젠더적인 면에서 기득권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앞으로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성을 가진 우리가 존재와 존재로서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영숙

청소년 자녀를 둔 지역 주민

● 뉴스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서 깜짝깜짝 놀란다.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던 중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쩌다 한번 받는 교육으로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지금은 열혈팬이 되었다. 아이들이 방학특강, 양육자와 함께하는 통통캠프, 청소년동아리 '맘친' 등을 참여하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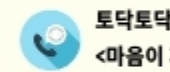
- T 성과 성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합니다.
- O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키웁니다.
- N 성적 존재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 G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똑딱똑딱

<평등·평화 성문화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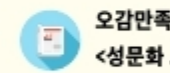
성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우리 사회 성평등 문화에 자신의 역할을 더해 줄 성문화센터의 든든한 조직 활동



토닥토닥

<마음이 자라는 상담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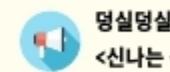
성과 관련된 고민으로 마음을 쓰고 있는 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상담 진행



오감만족

<성문화 교육관>

성문화센터에서 교구를 활용한 성교육 체험 및 성의식 점검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명실당실

<신나는 성문화 놀이터>

아동·청소년의 성 가치관 교육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인식 캠페인 진행

교육문의 032-500-2251~4

상담문의 032-500-2250

홈페이지 http://www.icbp.go.kr/open_content/gender/

위치 7호선 삼산체육관 3,4층 출구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 성문화센터



휘파람 마켓 문화다양성을 보고, 듣고, 이해하다

2018 INCHEON ART BOOK FAIR

5월의 푸르른 어느 날, 신트리공원에 인천아트북페어 <휘파람 마켓>이 열렸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 개개인의 성향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고 다양성과 독립문화의 참신함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마켓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서울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부평은 서울 문화권에 편입되어 자생적인 비주류 문화와 자유로운 감수성을 지닌 하위문화가 양성되는 물적 인프라 및 지원제도 등의 기반을 넉넉하게 갖추지 못했다. 독립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부평보다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서울로 창작자들이 몰린 지 오래다. 서울은 창작물과 정보가 집중되어 소비자를 만날 기회와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평의 문화토양에 단비가 되어줄 아트북페어가 열렸다. 지난 5월 26일 신트리공원에서 열린 <휘파람 마켓>은 '여성과 이주민'과 관련된 주제의 독립출판물과 일러스트·공예작품, 인디음악이 소개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북극서점과 함께 마켓을 꾸렸다. 소수자로 분류된 독립문화 예술가와 여성, 이주민이 주인공이 된 자리였다. 슬로건은 'I Love Just The Way You Are',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소수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그들이 소수자인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다수자의 입장에서 너그럽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 되기를 선택한 그들의 용기를 멋있다고 응원하고, 그들이 전진하는 모습에 감탄하는 것이 진정 그들의 편에 서는 방식이라는 독특한 작가의 시선을 전달했다. 또한 독립출판물을 비롯한 독립문화 창작자들을 위한 이야기로 창작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진정성을 담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 팟캐스트 제작기를 전했다. 강연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따스한 음악으로 여운을 남기고

오후 3시, 마림바 밴드의 'MAY', 'Fly To The Moon' 깜짝 연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엄마와 함께 마켓에 놀러 왔던 어린이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모두 모여주세요~"라고 외쳤고, 아이의 경쾌한 목소리는 마켓을 누비며 셀러들의 작품을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청명한 마림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무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토요일 오후, 무대 앞 잔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더위도 잊은 채 음악을 즐겼다. 저녁 무렵 이어진 싱어송라이터 시와, 동네 가수 이내, 신에 최수인의 잔잔한 공연은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기타 반주 하나로도 풍성하게 울리는 따뜻한 음악은 초록 잔디와 어우러지며 평화로움을 선사했다.

인문, 소수문화, 일상, 경제 영역을 버무려 완성된 휘파람 마켓에서는 복합적인 대안문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차이를 드러내고 이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긍정의 신호이다. 앞으로도 젊고 트렌디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과 소수문화를 일깨우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취향과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몫일 것이다.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차이를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마켓에는 독립출판 작가, 작은 출판사, 일러스트 수공예 작가 등 총 80팀, 160여 명의 셀러들이 참여하여 신트리공원 축구 잔디 위에 펼쳐진 부스마다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젊은 창작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가지각색의 예쁜 소품은 모여든 사람들의 감성을 충족시켰다. 무료체험도 즐길 수 있었는데, 여성·이주민 단체가 주축이 되어 선보인 원데이 클래스와 페미니즘 상담소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거부감 없이 차이와 차별, 불평등과 혐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값진 자리였다.

타인의 슬픔과 연대하기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정혜윤 PD가 오프닝 강연을 맡았다. 타인의 슬픔과 연대하기라는 내용으로 세월호 사건의 연루된 남은



↑ 지역 탐방
←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BP창의경영프로젝트

부평구문화재단은 구성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BP창의경영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시대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역량강화교육'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시설 등의 이해와 인식을 위한 '지역콘텐츠 탐방'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직 내의 유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 간 활발한 소통을 위한 '직원 동아리 활동지원'과 '직원 워크숍'을 운영한다. 'BP창의경영프로젝트'는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자긍심 제고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환원(society restoration)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관 종사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다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부평구문화재단은 3월부터 첫째 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작한다. 12월까지 이어지는 이 교육은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로서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48회의 교육을 진행하며, 조직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 교육에서부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 교육, 생활문화, 문화도시, 도시재생 등 문화예술 관련 이슈까지 다방면을 아우르는 주제를 다뤘었다. 앞으로 문화기획, 문화예술 홍보전략 등의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자 한다.

“ 문화예술창작자들의 집합체인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다양성'에 대해 접근한 교육이었다.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으며, 앞으로 더욱 지속, 심화되어야 할 것 같다.”

“ 오늘 교육과 연계하여 젠더감수성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관련 업무는 페미니즘, 젠더 감수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동의해야 한다.”

지역을 알고, 지역과 소통하기 위한 발걸음

지역 콘텐츠 탐방

지역콘텐츠 탐방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서비스의 터전이 되는 인천지역의 특성 및 역사를 이해하고, 직원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역콘텐츠 탐방은 매년 분기별 2회씩 총 8회를 진행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일하는 지역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천과 부평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지역밀착형 사업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총 30회에 이르는 탐방을 진행하며 다양한 공간들을 방문했다.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한 부평의 사례인 청천산곡공동체, 외골문화회관, 원적산 공원을 방문하고, '개항장을 통한 인천역사 고찰'이란 주제로 개항지 일대 유적지 답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영화공간 주안, 송암미술관 등 인천의 여러 문화공간을 방문하였다. 탐방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공간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 관계자들을 미리 섭외하여,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도 지역콘텐츠 탐방은 "부평"에 집중하고자 한다. 구 단위의 지역이라 관련 자원과 공간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부평에도 볼거리가 다양하다.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다

직원 동아리 활동 지원과 직원 워크숍

부평구문화재단은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및 팀워크 향상, 자기개발을 위해 직원 동아리를 운영하고 이를 위해 활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이 업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가활동을 통해 자기개발을 하고 구성원 간 소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아리 활동지원은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개의 동아리가 혜택을 받았다. 처음에는 탁구, 배드민턴, 농구 등 스포츠 위주의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점차 합창, 발레, 사진, 전시관람 등 문화예술기관의 특성이 담긴 동아리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BP직원워크숍 운영을 통해 당해년도의 업무들을 돌아보고, 익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힐링을 주제로 한 강연과 행사, 체육대회 등을 통해 서로 친해질 기회를 마련해왔다.

마음과 정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작은 땀방울

직원봉사활동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직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로마캔들,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크레파스, 손장갑 등을 만들어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하였다. 이외에 미혼모자를 위해 직접 생활의 집에 방문해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한 경험도 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못하지만 매년 꾸준히 마음과 정성을 환원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직원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직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동아리 활동 시, 자원봉사하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스스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4년 직원역량강화교육과 지역콘텐츠 탐방에서 시작한 BP창의경영프로젝트는 2015년 직원 동아리 활동지원, 직원봉사활동, 직원워크숍 등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올해는 신규직원교육을 새롭게 운영한다. 매년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평구문화재단은 계속해서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 동아리 활동
↓ 봉사활동



ZOOM IN
1

클라라 주미 강 리사이틀 낭만을 켜는 현악의 주인공

미묘한 소리에서부터 웅장한 소리까지 자신의 스토리를 악기에 담아 연주하는 클라라 주미 강의 연주회가 지난 4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에서 열렸다. 연주회가 열리기 전 공연장은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관객의 설렘과 흥분감으로 한껏 달아올랐다.



공연의 막이 오르고 창의적으로 원곡을 재해석한 나무랄 데 없는 그녀의 연주는 박수갈채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번 공연에서 주미 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시절을 함께한 피아니스트 '김재원'과 슈만(세 개의 로망스), 생상스(론도 카프리치오소), 이자이(소나타 3번), 프랑크(소나타)의 바이올린 명곡을 연주했으며 바이올린 독주곡의 바이블이라 평가받는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샤콘느'를 독주했다.

흐르는 강물처럼 감동도 따라 흘러

연주는 바이올린 독주곡의 바이블이라 평가받는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샤콘느'로 시작했다. 그녀는 바이올린 하나만으로도 관객을 압도해 자칫 초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비장미로 바꾸는 마법을 펼쳤다. 관객은 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활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저마다의 감정을 만끽했다. 독주가 끝나고 피아니스트 김재원과 함께 슈만이 그의 연인 클라라를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헌정한 곡인 세 개의 로망스를 협주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은 세 개의 주제를 때로는 속삭이듯 때로는 강렬한 외침으로 자신의 컬러로 표현해냈다. 관객은 천상의 악기인 바이올린을 확인시켜 준 카미유 생상스의 론도 카프리치오소에서 최고의 몰입도를 보여주었다. 원곡은 생상스(1835~1921)가 작곡한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으로 오늘날에는 보통 피아노 반주 버전으로 연주한다.

인터미션 후 독주 외젠 이자이의 '소나타 3번'과 세자르 프랑크 '소나타'가 연주되었다. 벨기에 리에주 태생의 이자이(1858~1931)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발라드'는 온음계로 시작되지만 이후 반음계적인 진행이 이어지는 곡으로 변화무쌍한 바이올린의 기술을 선보였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는 오르가니스트였던 세자르 프랑크가 1886년에 작곡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이다. 프랑스 계열의 바이올린 소나타 가운데 최고 걸작으로 평가된다. 클라라 주미 강의 바이올린은 단순한 독주 악기 이상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했다. 본 공연이



끝나고 클라라 주미 강은 관객들에게 드뷔시의 아름다운 저녁(Debussy, Beau Soir)을 앵콜곡으로 선사했다. 연주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클라라 주미 강을 보기 위해 사인회에 몰려들었다. 특히 미래의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밝은 희망에 들떠 있었다.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부평아트센터 공연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스타의 만남, 감성의 폭발

주미 강은 2010년 샌다이 콩쿠르와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을 거두며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부상하였다. 이후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등 해외 유수 음악단체의 내한 공연의 바이올린 협연과 서울시향(크리스토프 포펜),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유럽 투어(하인츠 홀리거), 일본 NHK 심포니(시모노 타츠야)와의 협연을 성황리에 마치며 차세대 음악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번 공연은 작년 10월 진행되었던 투어와는 다른 콘셉트의 독주회로, 오직 부평아트센터에서만 볼 수 있는 리사이틀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섬세한 터치와 음색, 센스있는 음악성을 가진 피아니스트 김재원은 일찍이 피아노 영재로 주목받기 시작해 제47회 동아 음악 콩쿠르 1위를 비롯해 아시아 국제 피아노 아카데미 금상 등 각종 콩쿠르에서 높은 성적으로 거두며 두각을 나타냈다.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양평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코리아 쿨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향의 실내악 시리즈에서 함께 연주했다. 이번 연주에서 클라라 주미 강과 협연함으로 또다시 최고의 연주회로 장관을 이루었다.

INTERVIEW



김규남 대위 및 육군 3보급단 장병들

"저희 부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주 부평아트센터에서 문화공연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연주회에 관심 있는 병사들과 함께 왔습니다."



안서연 님 가족

"악기를 전공하기 때문에 클라라 주미 강 연주 보는 것이 더욱 긴장되고 기대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공연이었고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시
5.1(화)~5.5(토)

장소
부평아트센터 일대

프로그램
전시
<아빠를 찾아라>
공연
<봉장취>, <헨젤과 그레텔>, <애니메이션콘서트>
축제
<BUKIF 초록누리축제>, <BUKIF 어린이그리기대회>

관람연령
전연령



부평의 5월은 여전히 풍성했다.

올해는 특별히 <sound of music>을 주제로 음악으로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해 의미를 더했고 재단의 모든 기관이 참여하여 체험 이벤트도 늘리고, 무대도 추가하여 여느 해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했다. 부평의 부모들이라면 어린이날이 더 이상 부담스럽고 힘겨운 날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한 하루로 즐길 수 있다.

흥겨운 전시, 공연, 축제 모두 행복해요~

2018 부키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공연장과 야외광장에서 2018부키프가 진행되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부키프는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고 어린이날에는 특별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이 이어지는 축제를 말한다. 올해는 2016년 문화특화지역조성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음악도시 부평'으로 성장하는 부평구의 문화정책 방향성에 맞추어 'Sound of Music'이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했다.

5월은 푸르구나, 계속되는 전시와 공연

<아빠를 찾아라>는 4월 26일부터 벽화, 미디어아트 등으로 아빠를 직접 표현한 전시로 김우령, 성낙진,

윤서희, 이정은 작가가 참여해, 가정의 달, 아이들의 예술적 상상력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시였다. 이번 전시는 아빠의 직업과 성격을 스티커와 그림을 통해 표현하며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시간부터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낼 수 있는 대형 캔버스까지 다양한 체험과 함께했다. 한편 5월 1일부터는 장갑과 양말 같은 생활용품이 무대 소품이 되는 전통 음악극 <봉장취>가 공연되었고 5월 3일은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작합창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5월 4일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기 상어를 들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콘서트>가 각각 공연되었다.

어린이날 부키프 초록누리 축제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부키프 초록누리 축제가 부평아트센터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른 시간부터 잔디밭에는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행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생동감이 부평아트센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부평아트센터 곳곳마다 재미있는 행사와 전시 알뜰 장터가 개최되었는데 특별히 이번 행사는 여권 이벤트를 실시해 부키프 여권을 만들어 각 행사 부스를 찾아가 도장을 받아오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다. 또한 어린이 자원봉사자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 주며 보람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올해는 뮤직 밴드들의 행진이 있어서 동화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아이들이 함께 꼬리를 물며 행진하는 모습이 있었고 작년에 이어 커다란 인형들이 등장해,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1시부터는 구름마당 잔디 무대에서 본격적인 공연이 펼쳐졌다. '침침체리'라는 마술 묘기가 음악과 함께 스토리있는 공연으로 이어지고 비눗방울을 만들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구름마당을 들썩이게 했다. 이후 숲속 무대에서는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책 읽어주는 '우리 아빠는 외계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영상과 함께 책을 읽으며 연주를 듣고 아이들의 호응도



개성 넘치는 소품과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아트마켓
독특한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던 벼룩시장



부모님의 추억을 듣게 한 뮤직 트랙

올해로 5회째 진행된 부키프는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고 특별히 어린이날에는 가족이 함께 야외공연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아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아빠를 찾아라' 전시



구름마당에서 펼쳐진 부키프축제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즐거운 아이들 모습



신나게 공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축제에 활발히 참여하며 부키프 여권 여권에 도장을 찍었다.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 이후 특별한 공연이 이어졌는데 미얀마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하울림합창단이 '에멜바이스'와 '도라지꽃'을 아름다운 합창으로 선보였다. 함께 만드는 뮤지컬 코너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었는데 아름다운 화음으로 인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출하는 듯했다. 부모님들에게는 추억을 듣게 하는 함께 듣는 뮤직트랙이 준비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부키프 초록누리 축제는 청소반장 유상통이 분리수거를 퀴즈를 내면서 즐거움은 물론 유익함을 제공한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2018 부키프 초록누리 축제는 기존에 선보였던 잔디 무대와 함께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 건물 뒤편 '숲속 작은 무대'를 새롭게 선보였으며 어린이들이 집에서 악기를 가져와 함께 공연하는 '함께하는 뮤지컬' 등 관객과 호응하는 공연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부평아트센터 로비에서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예술영재 발굴 프로젝트 '2018 부키프 어린이 그리기 대회'가 '우리 가족 보물상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이 대회에서 수상한 수상작품들은 5월 아트센터 꽃누리 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

INTERVIEW



배지성 — 4학년

"엄마가 부키프 초록누리 축제 자원봉사를 하셔서 저도 따라 봉사하고 있어요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너무 즐거워요"

이해윤 — 7살

"악기 붙어보는 건 처음인데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기해요 빨리 다른 것도 체험하고 싶어요."



김서은, 서울 엄마

"어린이집에서 홍보 책자를 보고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권 도장 찍으러 갈려고요."



권찬빈 — 일신동 4학년

"학교 선생님이 봉사 담당선생님이라 이번 행사 봉사 참여를 권유하셨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풍선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원봉사는 마음이 뿌듯하게 느껴져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모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세민, 김세희, 유하연(엄마)

"초등학교 1학년 세희와 6살 세민이와 함께했구요. 우리 가족이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 보물 상자에 담고 싶은 기억을 그리고 있어요. 올해가 두 번째로 참여하는데 지난해 이어 좋은 성적 내기를 기대합니다."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이로 만나는 이야기



지난 5월 26일, 부평문화사랑방에서 '너의 마음이 보여' 마음 조각 완성을 주제로 가족 참여 수업이 있었다. 지난 5주간 아이들은 탐험대가 되어 부서진 마음 조각을 찾아 탐험을 떠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살피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을 배웠다.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한 마지막 날, 탐험대원인 아이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타인의 감정을 통해 마음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으로 만나는 이야기 '너의 마음이 보여' 1기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6일 총 6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마쳤다.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너의 마음이 보여'는 감정에 대한 한 편의 이야기를 연극적으로 경험하는 과정 드라마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직접 탐험대가 되어 잃어버린 마음 조각을 되찾아 마음 조각 퍼즐을 맞추고, 타인의 감정을 통해 내 마음속 감정을 꺼내어 보며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하는 연극놀이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고, 마음을 보고 싶다는 욕구를 갖는 것 또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 이에 '너의 마음이 보여'는 마음을 배워간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잃어버린 마음 조각을 찾아 탐험을 떠나다

'너의 마음이 보여' 1기 탐험대원들이 부평문화사랑방에 모였다. 아이들은 탐험을 떠나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아이들은 프시케를

만나 잃어버린 마음 조각을 찾아 탐험을 떠났다. 걱정 많은 철학자의 부탁을 들어주고 마음 조각을 얻었고, 오색빛깔 기억수집가의 기억공간을 만들어주고 마음 조각을 받았다. 마지막 외로운 배우를 만나 배우 대신 대본을 써주고 그 대본으로 연극도 했다. 외로운 배우에게도 마음 조각을 얻었다. 이야기 탐험대는 힘을 모아 프시케의 마음 조각을 모두 맞췄다. 탐험대의 마지막 연극이 있던 날, '너의 마음이 보여'의 1기 탐험대원들은 부모님과 친구들을 초청해 함께 기억을 공유하고 대본을 만들어 마지막 연극 무대를 완성했다. 탐험을 떠나기 전, 이야기 탐험대가 함께했던 약속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잘못을 해도, 누가 실수를 해도 뭐라고 하지 않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기'였다. 탐험이 끝나고 이야기 밖으로 나온 친구들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약속을 잘 지켜주었기에 즐겁게 탐험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1기 탐험대원들은 이 연극을 끝으로 모든 여행을 마쳤다. '너의 마음이 보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2기 탐험대원들의 흥미진진한 모험이 벌써 기대된다.

INTERVIEW

탐험을 도운 사람들

① 이현수(상자)

매주 금요일마다 프로그램을 의논하며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고생한 프로그램이라 더욱 애뜻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이해해요"라며 넘어가 주는 아이들에게 고맙었어요. '너의 마음이 보여'라는 제목처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느끼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② 김인혜(마노)

마음 조각을 매개로 감정을 열어둔 프로그램이에요. 한 어머니께서는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이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봤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일상과 다른 곳에서 충분히 느끼고 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감각적으로 저희보다 뛰어나고 열려 있는 아이들이예요. 그런 아이들이 이상적으로 오픈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③ 강경선(강쟁)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제나 목표는 마음을 보고 상대방을 헤아리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활동을 잘 전달하려는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고민은 회차를 거듭날수록 안정화되고 탄탄한 구성으로 잡혀갈 거로 생각해요. 마음 조각이 부서진 부스케에게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여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는 친구의 마음을 잊지 못할 겁니다.





조선인이 바라본 세계 해천추범海天秋帆 표류하는 돛단배

부평 문화사랑방 공동기획 나무챔버와 함께하는 <해천추범> 아름답고 황홀한 콘서트를 만나다

부평문화사랑방에 어둠이 깔리고 영상이 흘러나왔다. 5, 4, 3, 2, 1, 0 ... 카운트가 끝나자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무대 위로 올라가 의자에 앉은 한 사람. 그는 조선인 최초 세계 일주를 떠났던 민영환이 남긴 <해천추범>을 낭독했고, 관객들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나무챔버의 첫 번째 연주가 시작되었다. 스크린에는 파란 밤하늘을 수놓은 수천, 수만 개의 별과 바다, 그리고 어둠이 깔렸다. 나무챔버 연주자들의 몸짓은 마치 파도를 타고 동심 떠나가는 배와 같았고, 관객들 또한 음악에 금세 빠져들었다. 또다시 낭독과 연주가 반복되었다. 바이올린을 손으로

팅기듯 연주하는 나무챔버의 음악은 모험을 떠나는 민영환 일행의 모습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야기 중간에 등장한 테너는 무대를 누비며 관객과 눈을 마주치고 노래를 불렀다. 테너의 노래는 울림과 감동을 전했고, 관객은 박수로 화답했다.

기악과 연극의 융합 콘서트를 시도하다

100여 년 전 조선 말기의 문신인 민영환이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러시아로 떠났고, 그의 여정은 '해천추범'이란 기행문으로 남겨졌다. 1896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여행기로 인천 제물포항에서 출발하여 중국, 일본, 태평양을 건너 미대륙, 다시 대서양을 건너 영국,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러시아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돌아오는 일정이 기록된 것이 바로 '해천추범'이다. 부평문화사랑방에서 공동기획한 콘서트 <해천추범>은 시나리오 작가 한혜정 씨와 나무챔버 김무권 감독이 함께 재해석하여 세계 역사, 외교, 문화, 인문, 음악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 종합적인 콘서트다. 기존의 콘서트와 다른 점은 '드라마 콘서트' 형식이라는 점이다. '기악'과 '연극'의 조합된 콘서트인 <해천추범>은 장르 간의 융합으로 한국 클래식 역사상 첫 시도라 더욱 뜻깊다. 민영환 일행이 처음으로 만나는 서방 세계들(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러시아)과의 조우로 문화적 충격을 생생하게 그린 <해천추범>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많이 갖고 있다. <해천추범>은 미국 여행에 관한 이야기 <표류하는 돛단배>를 시작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총 6회의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이다.

INTERVIEW

나무챔버 김무권 감독



부평문화사랑방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강한 몰입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곳이지요. 연주자와 청중 모두 공연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마술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평문화사랑방에서의 공연을 좋아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도 부평문화사랑방은 최고의 선물이 같은 장소일 겁니다.

❶ 역사를 클래식 공연으로 구성한 공연을 만든 배경은?

나무챔버의 <해천추범>은 2017년부터 시작한 부평문화사랑방의 'N클래식 시리즈'의 두 번째 기획 공연입니다. 요즘은 클래식 공연에서 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어요. 어렵게만 느끼던 서양 클래식 음악을 쉽게 이해하고 듣는다면 빠른 감정 유입이 가능합니다. 감정은 이해되지 않으면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죠. 나무챔버는 한발 더 나아가 해설이 아닌 세계 역사, 외교, 문화, 인문, 음악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면서도 공연의 형태의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고, 물음의 답이 바로 나무챔버의 <해천추범>입니다. 전 국민이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에 <해천추범>을 통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단순한 해설이 아닌 현재의 물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해천추범>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❷ 모티브가 된 <해천추범>을 선택한 이유는?

세계 여행이란 주제에 특별한 무언가 필요했어요. 민영환의 '해천추범'에 대한제국을 더해 공부하니 민영환의 '해천추범'의 의미가 깊어 다가왔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외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이 바로 전 국민이 외교에 많은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천추범>을 통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❸ 토요일N클래식에서는 어떤 음악을 들을 수 있나?

1896년을 기준으로 앞의 100년, 뒤의 50년 동안 만들어진 방음곡의 음악을 공연하게 됩니다. 2,600여 곡(스트링오케스트라로 편성된 곡) 중 멋진 곡으로 어렵게 가려냈습니다. 곡 중에는 한국에서 초연되는 곡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황홀하고 멋진 곡들이라 금세 울음을 터트리실지도 모릅니다.

❹ 앞으로 토요일N클래식 <해천추범> 시리즈는 어떻게 진행되나?

아시아를 뺀 미국(1회: 표류하는 돛단배), 영국(2회: 성에 갇힌 사람들), 네덜란드(3회: 귀머거리들의 만찬회), 독일(4회: 바보들의 놀이터), 폴란드(5회: 양들의 혁명), 러시아(6회: 빈털터리들의 선택)를 대상으로 한다. 대한제국과 이들 나라 간의 그 당시 외교 관계, 해외독립운동가의 활동, 폴란드에서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이유와 러시아에서는 별 수확 없이 터덜터덜 되돌아오는 그러나 이미 바뀐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 5월 26일, '역사적 사건'을 극적인 형태로 재구성한 형식의 콘서트 <해천추범(海天秋帆)> 표류하는 돛단배> 공연이 있었다. 조선인으로 최초의 세계 일주를 떠났던 민영환은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해천추범'의 이야기와 나무챔버의 연주가 만나 생동감을 더했던 콘서트는 모두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토요일N클래식 <해천추범> 시리즈 공연 일정

07.28(토)	17:00	2장. 성에 갇힌 사람들
09.01(토)	17:00	3장. 귀머거리들의 만찬회
10.06(토)	17:00	4장. 바보들의 학교
11.17(토)	17:00	5장. 양들의 혁명
12.15(토)	17:00	6장. 빈털터리들



부평에서 독일의 감성을 만나다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공연



●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는 2007년 서남부 독일교향악단을 대표하는 SWR 방송교향악단과 SR방송교향악단이 합병하여 창단되었다. 천재적인 지휘의 대명사로 각광받는 카렐 막시송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예술감독을 역임하였고, 현재 피에타리 인키넨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독일 4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가 부평에 뒀다!

지난 5월 29일 오후 8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4번째 한국투어를 진행하는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열렸다.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는 독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방송 교향악단 중 하나로 독일 전역은 물론,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등 전 유럽을 아우르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독일 전통사운드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가 젊은 감각의 떠오르는 지휘자 '인키넨'과 러시아 자존심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의 조우여서 더욱 의미 있었다. 독일의 감성을 고스란히 전해준 열정적인 공연을 부평아트센터에서 만났다.

독일 정통 오케스트라의 위용을 알리듯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의 조명은 다른 때보다 더 환하게 밝혔다. 이번 공연의 지휘자는 핀란드 출신 30대 지휘자 피에타리 인키넨으로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과 브람스 '교향곡 4번'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연주했다. 협연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은 1989년, 17세에 영국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을 차지하며 '러시아 신동'으로 불리는 클래식계의 스타이다. 인키넨은 2009년 서울시향과의 연주 이후 1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 오케스트라 반주를 뛰어나게 이끌고 악단을 휘어잡는 리더십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지휘자이며 바딤 레핀은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불같은 열정, 완벽한 테크닉, 시적인 감수성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연주자이다. 공연의 첫 번째 곡으로 베토벤의 명곡 '에그몬트 서곡'이 연주되었다. 이 곡은 조국 독립에 몸을 바친 16세기 네덜란드 장군 에그몬트를 그린 괴테의 비극 <에그몬트>에 감격하여 작곡하였는데 비장한 스토리만큼 처음 듣는 사람들도 비교적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다. 이후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이 바딤 레핀과 함께 협연 되었고 이후 관객의 앙코르 요청에 바딤 레핀이 다시 나와 파가니니의 '베니스의 사육제'를 연주했다. 클래식 공연의 묘미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클래식에 문외한이어도 어디선가 들어본 직한 곡이 나오면 더욱 가슴이 두근거리기 마련이다. 인터미션 후 오케스트라는 브람스 교향곡 4번 E단조를 연주했다. 긴 연주시간에 대한 걱정은 단번에 날려버리는 귀를 행복하게 하는 감동과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케 하는 힘이 있었다. '브람스 교향곡 제4번 마단조, OP.98'은 브람스가 그리스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 교향곡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다.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 오이디푸스의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체념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된다. 모든 연주 후 지휘자 인키넨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을 앵콜곡으로 연주했고 이어 우리나라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했다. 음악은 통역이 필요 없는 만국공통어임에 틀림이 없었다. 이날 공연이 끝난 후 지휘자 피에타리 인키넨과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은 사인회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품격 높고 수준 높은 공연에 친근하고 정감 넘치는 고객서비스까지 이날 공연이 부평 구민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은 이유였다.



부평구문화재단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부평구문화재단은 여성가족부의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도부터 도입한 제도이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부평구문화재단은 3개 심사분야, 12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2017년도에 신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2016년도부터 경영전략 일환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으며, 2017년도부터는 "주중 야근 없는 날"을 운영하여 직원에게 가족사랑 실천의 기회는 물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권장토록 하였으며, "근로자 상담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업무관련 발생되는 다양한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평구문화재단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체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126명 대상자 중 53명이 참여했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을 시상한 바 있다.



부평구문화재단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한 기부하는 기분 좋은 부키프

부평구문화재단(대표 박옥진)에서 기획한 2018 제5회 부평키즈페스티벌(이하 부키프)이 지난 5월 5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와 함께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 지역본부와 손잡고 부키프 기부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성금을 전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는 2017년부터 부키프 축제 부스에 참여하여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올해는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악기 만들기 부스와 여권 미션 프로그램에 관객들이 1천 원으로 구매하고 이에 모인 모금액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426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즐기고, 어려운 어린이를 돕는데 사용하여 기부의 기쁨과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아트센터 유료 공연에 소외계층을 초청하는 문화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등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다.

부평이 부르는 5월의 노래 <2018 부평 솔아솔아 음악제>



지난 5월 26일 저녁 7시,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 <2018 부평 솔아솔아 음악제>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솔아솔아 음악제'는 부평국가산업공단을 중심으로 1970년, 1980년대 노동운동의 메카이자 민중가요의 산실이었던 부평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그 시대 정신을 기리고자 기획된 음악제이다. 부평구문화재단, 경인방송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음악제는 "바위섬"의 김원중, "개동벌레"의 신형원이 출연해 귀에 익숙한 음악을 들려주었으며 합창으로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MC스나이퍼가 출연해, 저항과 평화를 노래했다. 또한 인천의 콜트락기, 대전의 콜렉에서 기타를 만들다 해고되어, 12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노래하며 투쟁하고 있는 해고노동자 밴드 '콜트콜렉 기타노동자 밴드'와 그곳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보내며 그림으로 그들을 대변한 전진경 작가가 무대에 올라 '솔아솔아 음악제'의 의미를 더했다. '부평 솔아솔아 음악제'는 1980~2000년대 대학가와 노동현장에서 불린 민중 음악, 노동 음악 전통을 바탕으로 지나간 시대의 노동현장에서만 존재하는 노래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재해석 되는 '민중음악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행사다.



지역의 곳곳으로 예술가가 찾아간다! <2018 찾아가는 문화마실>



영재와 마주 — 3.21(수) 14:20 인천 해광학교
 김찬수 마임컴퍼니 — 3.28(수) 11:00 은광학교 — 4.11(수) 16:00 어울림센터 4층 — 6.27(수) 16:00 청천보건소 다목적실
 가야금 앙상블 지금 — 4.25(수) 16:30 부개도서관
 모래알 — 5.09(수) 10:30 성동학교 — 5.30(수) 11:00 후정초등학교
 인천 콘서트 챔버 — 6.20(수) 19:00 백운역 맞이방

부평구문화재단은 올해도 집 앞 5분 거리에서 진행되는 <2018 찾아가는 문화마실(이하 문화마실)>을 진행해 문화·예술 공연을 확산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문화마실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017년에 이어 올해도 공모를 통해 기획자를 선정하여 공연을 진행하는데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마실은 평소 공연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운 문화사각지대를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방식과 초·중·고생, 일반인, 어르신 등 다양한 대상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지역 내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선정된 팀들의 예술적 능력이

가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 팀의 기획자와 협의하여 공연 장소를 매칭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문화마실은 3월 21일(수) 시각장애학교인 해광학교에서 펼쳐졌다. 공연단체는 <영재와 마주>로 가야금 연주자 '조영재'와 전통음악 고유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모토로 일렉트로닉 음악을 창조해내는 집단 'MAJU'가 만난 프로젝트 팀이 공연을 진행했다.

은광학교와 어울림센터, 청천보건소에서 관객을 만나는 김찬수 마임컴퍼니는 국내외 축제 및 거리 공연 무대 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즐겁고 신선한 공연을 선보이는 단체이다. 김찬수 마임컴퍼니가 준비하는 <블랙클라운> 공연은 마임, 저글링, 외발자전거 등이 포함된 서커스 광대극으로 관객들을 맞이했다. '문화가 있는 날'인 4월 25일(수)에는 가야금앙상블 '지금'이 부개도서관에서 가야금 연주를 들려주었다. 가야금 앙상블 '지금'은 '知(알지) 琴(가야금 금) - 가야금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과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음악이 되자'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결성된 가야금 앙상블 4중주 팀이다. 민요, 가요, 영화 OST 등 전통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공연으로 휴식 같은 공연을 선사한바 있다.

6월 20일(수) 백운역에서는 <역사음악 이야기 근대음악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조선 말부터 해방기까지 서양에서 국내로 유입된 음악들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역사음악여행으로, 서양 고전음악과 근대 국내 유입 및 작곡된 곡을 주로 연주하는 인천 콘서트 챔버가 연주를 들려주었다. 문화마실은 4, 5, 6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포함하여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2회씩 공연을 선보였으며 하반기에도 동일한 컨셉으로 다양한 공연진과 함께 한다.

제19회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소녀들>

지난 5월 25일 저녁 7시 30분(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제19회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소녀들>이 개최되었다. 아름다운 명곡들로 펼쳐진 이번 정기연주회 <소녀들>은 유명 성가곡 모음과 사계절을 담은

가곡 모음 외에도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여성합창단 30명이 특별출연하여 이색적이고 다양한 음악 세계를 들려주었으며, 마지막 5부에서는 소중한 추억들을 되새겨보며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음악극 <소녀들의 시절>을 어쿠스틱 협연과 함께

선보이며 감동과 환희의 무대를 선보였다. 윤재동 지휘자가 이끄는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2000년에 창단하여 인천합창제 대상, 전국 LG 휘센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 광주전국합창경연대회 은상, 전국유관순합창대회 대상 등 여러 전국 경연대회에서 기량을 인정받은 국내 최고 수준의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부평구의 문화사절단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매년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구민과 만나고 있으며 연 2회 신입단원 정기모집을 통해 부평구의 새로운 목소리를 발굴하고 있다.



HAPPY TOGETHER !

<문화나비>



'문화나비'는 지역민과 문화재단이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기부사업이다. 지역의 음식점이나 점포, 기업이 시민회원으로 가입해 소액기부를 하면 재단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문화나비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는 점과 지역주민이 문화사업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문화나비는 올해 7개 업체가 추가 가입하였고, 총 11개 가맹점이 지역 문화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 방향성에 맞추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확대하고 모두가 문화예술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나비 가맹점

- 백두산 참숯화로구이
- 부일정육식당
- 해주막국수
- 바우네 나주곰탕

(2018년 가입)

- 숯가락 반상 마실
- 월드연슈
- 커피마마
- 밀레
- 유카스에너지 열우물점
- 코코 돈까스
- (주)인영자동차공업사

1	2
3	4
5	

- 1 숯가락 반상 마실
- 2 월드연슈
- 3 커피마마
- 4 밀레
- 5 유카스에너지 열우물점

2018년도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4분기 대관안내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단체)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용시간 월~토 10:00~21:00

대관장소

- 연습공간 (B1F) : 오픈 스페이스, 연습실 1·2·3



오픈스페이스 연습실 1 연습실 2 연습실 3 연습실 4

- 활동공간 (1F) : 다목적홀, 프로그램실1, 프로그램실2, 모임방1·2·3·4, 영상편집실



다목적홀 모임방 영상편집실 프로그램실 1 프로그램실 2

사용료

구분	대관료	비고
오픈 스페이스	20,000원	한 타임 (오전, 오후, 저녁 3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20% 가산
다목적홀 / 연습실 / 프로그램실	10,000원	
모임방 / 영상편집실	무료	

사용가능시간

구분	시간대	시간
오전 타임	10:00 ~ 13:00	3시간
오후 타임	14:00 ~ 17:00	3시간
저녁 타임	18:00 ~ 21:00	3시간

대관기간 10.1(월)~12.31(월)

대관절차 예약신청 → 담당자 예약승인 → 입실확인 → 공간이용 → 퇴실점검

신청방법 홈페이지(www.bpcf.or.kr)를 통해 예약가능합니다. [대관 > 부평생활문화센터 > 대관신청]

안내 공간 운영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 및 대관 규약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용도로 시설이용이 불가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홍보물 부착 및 내부설비 이동 등을 삼갑니다.
음식물 섭취를 원하시는 분은 1F 카페168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관문의 032-500-2064

2018년도 하반기
부평아트센터 수시대관안내

부평구문화재단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우수작품 발표 장소로 부평아트센터를 제공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접수기간 상시접수
(대관가능일자는 담당자와 협의)

대관장소 해누리극장 (대공연장),
달누리극장 (소공연장),
갤러리꽃누리 (전시장)

접수장소 부평아트센터 1층 공연사업팀

접수방법 대관문의 후,
대관신청서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접수문의 032-500-2055

2018년도 부평아트센터
기타시설 대관안내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기반시설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턱 낮은 복합 문화공간의 활용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접수기간 상시접수

대관장소 호박홀, 세미나실, 스튜디오 A·B·C

대관절차 예약신청 → 담당자 예약승인 →
사용법 및 주의사항 숙지 →
공간이용 → 퇴실점검

신청방법 홈페이지(www.bpcf.or.kr)를 통해
예약가능합니다.
대관 > 부평아트센터(기타시설) >
대관신청

접수문의 032-500-2034

미리



보다

2018년 부평의 가을과 겨울은 더욱 풍성한 부평구문화재단의 이야기로 채워진다.

언제라도 들러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부평아트센터의 상주단체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음악가, 인기스타의 방문 공연도 이어진다.

음악도시 부평을 증명하는 공연과 함께 부평구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pecially 부평의 자랑, 당아시 공연으로 부평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추억을 소환한다.

환호와 열정, 행복이 넘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가을 발걸음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What's next

- 김선옥 피아노 리사이틀
- 뮤직게더링
- 화이트세일
- 이은미 콘서트
-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Calendar



WHAT'S NEXT 1



부평아트센터 우수클래식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2010년 첫 리사이틀 투어 이후 음반 발매를 기념하거나 작곡가를 조명하는 레퍼토리로 관객을 만났던 김선욱은 이번 2018년 가을 리사이틀에서 지금 현재에 탐구하고자 하는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일시
9.6(목)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0,000원, S석 3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김선욱

프로그램
모차르트 소나타 9번 D장조
베토벤 소나타 17번 d단조 '템페스트'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브람스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베토벤-브람스 등의 특히 독일 피아노 작품이 지닌 각각의 표현을 깔끔한 비르투오시티와 세련된 음색으로 구현했던 김선욱.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터치와 함께 건반을 장악하는 고급 테크닉이 무엇인가를 그의 앨범들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모차르트 소나타 9번 D장조, 베토벤 소나타 17번 d단조 '템페스트',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브람스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를 선보인다. 현재 그의 나이와 비슷한 때의 작곡가들이 쓴 곡들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연주 인생을 긴 호흡을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가 직접 고른 곡들이다. 독일 작품들에 가려져 있었지만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은 그가 앵콜곡으로 자주 연주했을 정도로 그간 쇼팽, 드뷔시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자신을 독일 고전과 낭만주의 사조에만 가두지 않고, 미묘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드뷔시를 프로그램으로 내놓으며 느리게 걷는 법을 배운다.

또한 그와 땀 수 없는 작곡가, 브람스의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를 함께 연주하며 보다 더 다양하고 넓어진 그의 레퍼토리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려줄 예정이다. 청년의 패기와 중년의 원숙미 그사이를 걸어가는 김선욱의 현재를 이번 리사이틀에서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WHAT'S NEXT 2



2018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음악도시 부평의 대표적 대중음악 축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다!

2015~2017년 개최된 부평밴드페스티벌이 대중음악 중심도시 부평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걸음을 한다. 과거 1950~60년대 부평 미군 부대 일대의 클럽 역사 재현과 국내 대중음악의 음악적 이슈 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진뮤지션과 국내외 화려한 라인업의 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음악을 좋아하는 누구나 음악도시 부평에서 마음껏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일시
10.26(금)~27(토)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및
달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WHAT'S NEXT 3



5th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예술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공유의 시간.

미술품 자선경매 다섯 번째 부평옥션 '화이트 세일'

예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낼 미술품 자선경매 '화이트세일'을 진행한다. 지역 문화예술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미술품자선경매를 진행하여 미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고, 작품 소장과 기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예술을 통한 나눔 확산'이라는 자선경매 행사의 취지를 살려내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또한 유도하고 있다. 프리뷰 전시를 통해 경매에 참여하기 전 응찰자와 관람객들을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의 컨디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경매 당일에는 누구나 참여하여 생생한 경매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프리뷰

11.2(금)~11.8(목) 10:00~18:00

경매 일시

11.9(금) 19:00

경매 후 전시

11.10(토)~11.25(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WHAT'S NEXT 4



부평아트센터 2018

이은미 콘서트

일시

11.28(수)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VIP석 110,000원,

R석 90,000원,

S석 80,000원,

A석 7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능

출연진

이은미

시대가 인정하는 최고의 대한민국 디바 이은미!

오직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라이브 무대로 관객들을 만나왔던 가수 이은미, 그녀만의 역동적인 무대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감동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대체불가 '라이브의 여왕' 이은미의 매력이 듬뿍 담긴 콘서트 현장으로 관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일시/장소

예산문화회관 - 11.17(토)
삼척문화예술회관 - 11.23(금)
무안송달문화예술회관 - 11.30(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12.13(목)~12.14(금) 19:30 /
12.15(토) 15:00

관람료

R석 40,000원, S석 3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출연진

최동호, 이여운, 안덕용, 이경미 외

대중음악 60년의 뿌리, 찬란한 음악도시 부평을 그리다.

2017, 201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2년 연속 선정!

올해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통해 부평뿐만 아니라 충남 예산, 강원 삼척, 전남 무안에서 초청되어 공연을 선보인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부평의 미군부대인 에스캄부대를 배경으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음악이라는 희망으로 치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음악이라는 치유제를 통해 무너진 꿈에서 활력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사랑등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표현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음악에 대한 꿈을 갖고, 미군부대 오디션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용생과 종현 등을 통해 대중음악의 60년 뿌리를 시대별 음악과 함께 풀어낸다.



08

부평아트센터 상주예술단체 인천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일시 제21회 정기연주회 8.9(목) 19:00
제22회 정기연주회 9.16(일) 19: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청소년 10,000원 / 성인 15,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일시 8.10(금)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관람연령 48개월 이상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문화사랑방
예술교육상주단체
공연

국립발레단과 부평아트센터가 함께 선보이는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희극 발레로 인간의 꿈과 도전, 용기 등을 재치 있게 다룬 원작의 의미를 예술미가 뛰어난 발레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해설이 함께하는 만큼 출연자인 '가마쉬'가 해설과 함께 퀴즈 이벤트로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극의 전개를 이끌어 나가 발레를 처음 접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초청 내한공연 에스빠냐 아리랑



일시 8.12(일) 16: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8세 이상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페인 최고의 국영방송 합창단 단원 중 25명을 선발한 외국 프로 합창단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복을 입고 한국 민요와 가곡을 부르는 합창단이다. 1999년 임재식 지휘자가 창단했으며, 80여곡에 이르는 한국 가요와 민요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다. 1부에서는 스페인의 음악을 2부에서는 '거문도 뱃노래', '밀양 아리랑' 등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평뮤직워크 사운드 플로우



일시 8.23(목)~8.25(토)
장소 부평공원, 부평역 지하상가, 부평 문화의거리, 굴포 먹거리타운 일대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사운드 플로우>는 2017년 <BP 뮤직데이>에 이어 진행되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음악동네 사업이다. 인천 및 부평의 뮤지션과 동호회, 문화예술 단체, 청소년 등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물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부평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을 확대해 부평공원과 부평역 지하상가, 문화의거리, 굴포 먹거리타운 등에서 진행된다.

2018 하반기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연극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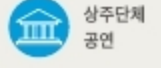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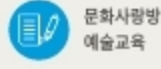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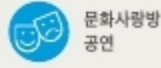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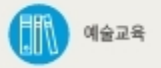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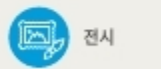


일시 8.11(토)~12.15(토)
매주 토 / 14:00~16: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대상 8~13세 어린이 40명
참가비 200,000원 (총 20회)
신청접수 7월30일(월)



08

09



2018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청년예담:
청년, 공연장을 움직이다

일시	9월~11월 중
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및 세미나실
대상	문화예술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 및 청년
참가비	100,000원 (총 10회)

문화예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예비 기획자 및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실무로 적용해 보는 과정까지 진행되는 실무 통합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명작

날말공장 나라



일시	8.24(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 연령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아네스 드 레스트라드가 글을 쓰고, 발레리아 도캄포가 그림을 그린 프랑스 유명 동화를 원작으로 한 책 공연이다. 말에 대한 소중함과 말보다 중요한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가족뮤지컬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일시	8.31(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 연령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는 칠레 작가 루이스세폴 베다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지난 2007년 태안반도의 기름유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2018 여름방학 어린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일시	8.6(월)~8.10(금) 10:30~12:00(3,4학년), 13:30~15:00(1,2학년)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 1~2학년, 3~4학년 / 각 반 13명
참가비	50,000원(총 5회)
신청·접수	7.24(화) 오전 10시부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신청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일주 기행문

2018 우리가족
토요일N클래식 시리즈

일시	9.1(토) 17:00 - 3장, 귀머거리들의 만찬회 10.6(토) 17:00 - 4장, 바보들의 학교 11.17(토) 17:00 - 5장, 양들의 혁명 12.15(토) 17:00 - 6장, 빈털터리들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6,000원
관람연령	전 연령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문의	032-505-5995

부평아트센터 우수클래식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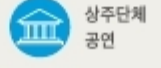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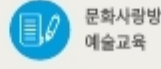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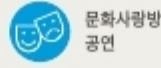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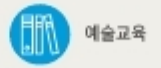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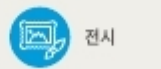


일시	9.6(목)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2010년 첫 리사이틀 투어 이후 음반 발매를 기념하거나 작곡가를 조명하는 레퍼토리로 관객을 만났던 김선욱은 이번 가을 리사이틀에서 지금 현재에 탐구하고자 하는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리사이틀을 통해 청년의 패기와 중년의 원숙미, 그 사이를 걸어가는 김선욱의 현재를 이번 리사이틀에서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09



부평아트센터 상주예술단체

한국근대문학극장



일시	9.12(수)~9.13(목)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한국근대문학극장'은 신체시, 창가, 신소설 등의 문학을 향유하여 국권피탈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탄생시킨 작품들을 다시 들여보고 연극 만들기를 통해 작가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발레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강아지똥



일시	9.15(토) 14: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발레동화 '강아지똥'은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작가故권정생 선생의 원작 동화를 바탕으로 만든 최초의 발레작품이다. 원작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발레로 표현하여 입체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조금 더 쉽게 관객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광장조각전

B-Square



일시	9월~10월 중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을 예술향유공간으로 활용하는 조각전시를 진행한다. 시각적으로 쉽고 재미있는 작품들로 구성된 야외전시를 통해 누구나 편하게 작품을 경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관람객이 뽑은 작가 신재은 개인전

부평영아티스트 3기
POP Prize

일시	9.13(목)~9.30(일) 10:00~18:00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2017년 부평영아티스트 3기 공모전을 통해 발탁된 5명의 전도유망한 작가들 중 관람객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최종 선

정된 신재은 작가의 개인전이 진행된다. 세번째 선정작가전에서 만나보았던 그녀가 작품을 더욱 심도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통 인형극

꼭두, 80일간의 세계일주



일시	9.19(수)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 연령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전통 인형극을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현대적으로 채색하고 인형극으로 표현하고 있는 '연희공방 음마깡깡'의 작품 '꼭두,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중요무형문화제 제3호 남사당놀이 중 꼭두각시 놀음을 차용하여 현대인들의 고민과 바람을 담은 작품입니다.



09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으로 만나는 이야기
'너의 마음이 보여'

일시	4기 9.8(토)~10.13(토) 5기 11.3(토)~12.8(토) 매주 토요일 10:00~12: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 3~4학년 / 각 반 15명
참가비	무료 (각 6회)
신청-접수	4기 8.28(화) 오전 10시부터 5기 10.23(화) 오전 10시부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과정드라마(Process Drama)형

연극놀이 프로그램

어디어디 숨었나



일시	9.3(월)~11.12(월) 매주 월요일 16:30~18:0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 1~2학년 / 12명
참가비	200,000원(총 10회)
신청-접수	8.21(화) 오전 10시부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2018 부평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

양희경과 함께하는 <달콤한 클래식>



부평아트센터 대표 공연, 브런치 콘서트!

주부들의 시름과 고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풀어나가는 부평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 <달콤한 클래식>. 토크는 물론 인문학적 소양까지 곁들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음악으로 행복한 11시를 만든다. 클래식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음악 선물이 함께할 브런치 콘서트와 한 잔의 커피로 여유로운 목요일을 즐겨보자.

일시	9.20(목) 11:00 - Muse, 그가 사랑한 여인 10.25(목) 11:00 - 권태기, 아찔한 현기증 11.22(목) 11:00 - 가족, 하나로 연결된 끈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출연진	양희경(사회), 아백 스트링 파르티트 외 다수
문의	032-500-2000

※ 공연 종료 후 커피와 다과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과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Muse, 그가 사랑한 여인
Beethoven
'Quartet Op.18 No.4 in C minor mvt.4'

Beethoven
'Op.47 "Kreutzer" in A major mvt.3'

Chopin
'nocturne' op.9 no.2 (piano solo) 외

권태기, 아찔한 현기증
Offenbach
<Orpheus in the Underworld> 中 "Cancan"

Mozart
<Don Giovanni> 中 "Dehl Vieni Alla Finestra"

Mozart
<Le Nozze Di Figaro> 中 "Porgi, amor"

영화 <물랑루즈> OST 中
"El tango de Roxanne"

Bizet
<Carmen> 中 "habanera" 외

가족, 하나로 연결된 끈
Piazolla
'Adios nonino'

Schumann
'traumerei (piano solo)'

Bach
'Goldberg Variations BWV.988 Aria'

C. Debussy
'Deux Arabesques No.1 in E Major L.66 - Andantino Con Moto' 외



10

부평아트센터 상주예술단체

Sound of Screen&Musical



일시	10.21(일) 19: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연령	만8세 이상

익숙한 영화 및 뮤지컬의 주요 장면과 인천신포니에타의 연주가 함께하는 <Sound of Screen&Musical>를 부평아트센터에서 만나보세요.

2018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일시	10.26(금)~27(토)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및 달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2015~2017년 개최된 부평밴드페스티벌이 대중음악 중심도시 부평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걸음을 한다. 과거 1950~60년대 부평 미군부대 일대의 클럽 역사 재현과 국내 대중음악의 음악적 이슈 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진 뮤지션과 국내·외 화려한 라인업의 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음악을 좋아하는 누구나 음악도시 부평에서 마음껏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부평아트센터 클래식

인천시립교향악단
with 영아티스트

일시	10.26(금)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부평아트센터가 기획한 클래식 공연으로 촉망받는 영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함으로써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Perennial Inspiration

부평영아티스트 4기
선정작가전

일시	10.4(목)~10.28(일) 10:00~18:00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부평영아티스트> 공모전에 발탁된 4기 작가들의 선정작가전을 통해 그들의 작품에 공감하고, 그들의 성장을 독려해 현대미술 아트신을 이끄는 '라이징 아트스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시 기간 중 관람객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POP PRIZE'선정을 관람객이 최종 심사위원이 되어 주체적인 관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음악극

길동외전



일시	10.12(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 연령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길동외전'은 저승에서 50년만에 주어지는 의인 환생의 기회를 얻게 된 홍길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고 위로 받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연입니다. 단순히 음악과 극의 구성이 아닌 모든 장면 에 영상이 가미되어 극의 배경과 음악에 맞는 무대효과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11

창작국악동요와 합창뮤지컬 '3대 천왕' 제9회 부평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일시	11.3(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7세 이상
출연진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폭넓은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는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제9회 정기연주회에서 창작국악동요와 합창뮤지컬을 선보인다. 국악동요 연주와 각 나라의 합창뮤지컬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음악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연극배우 박정자의 낭독 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



일시	11.16(금)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5,000원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죽는날까지 침묵해야 했던 정순왕후의 기구하고 애달픈 사랑이야기가 부평아트센터를 찾아온다. 주옥같은 대사를 연극배우 박정자의 낭독과 강은일의 해금, 이정엽의 기타연주, 그리고 영상과 함께 함께 감성적으로 그려낸 낭독연극이다.

부평아트센터 2018 이은미 콘서트



일시	11.28(수)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VIP석 110,000원 / R석 90,000원 / S석 80,000원 / A석 7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오직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라이브 무대로 관객들을 만나왔던 가수 이은미. 그녀만의 역동적 무대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감동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대체불가 '라이브의 여왕' 이은미의 매력에 들킨 관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평문화재단 창작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일시/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12.13(목)~12.14(금) 19:30, 12.15(토) 15:00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부평의 미군 부대인 에스캄부대를 배경으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음악이라는 희망으로 치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화이트세일 5th 부평옥션



프리뷰	11.2(금)~11.8(목) 10:00~18:00
경매 일시	11.9(금) 19:00
경매 후 전시	11.10(토)~11.25(일) 10:00~18:00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가족 뮤지컬 Musical theatre Prize

일시	11.9(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 연령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꿈'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은 순수 창작 공연으로 새로운 재료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발명가 아저씨와 아저씨의 곁을 지키는 인형이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용복합 음악극 수다떠는 톡(Talk)페라

일시	11.23(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 연령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12

부평아트센터 상주예술단체 터 무늬 있는 연극X 인천_부평편



일시	12.1(토)~12.2(일) 14:00
장소	부평구 일대(부평아트센터 출발)
관람료	무료 (사전예약 필수)
관람연령	8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자 동반)
구성·연출	전운환, 조민정

<터 무늬 있는 연극>은 건축가 승효상의 책 <지문>에 영감을 받아 2014년부터 2년간 인천 개항장 일대와 인천의 역사, 지역 공동체, 지역 예술 생태계를 감각하고 사유하며 만든 작품이다. 직접 걸으며 공간을 품고 있는 이야기를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 공간이 담고 있는 시간을 오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거나, 예술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간에 녹여내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이야기가 발생하는 장소를 부평으로 한정하여, 이 공간을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걸으며 공연을 만들어 나간다.

모두 함께 즐기는 무료 음악회 2018 로비음악회 12시 15분



일시	12.8(토) 12:15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로비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부평아트센터 대표 무료 공연.

겨울왕국 이야기와 함께하는 퓨전 음악회

생생 Live 음악회



일시	12.14(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 연령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해금과 대금 등의 국악기와 건반, 기타, 드럼 등의 현대 악기로 구성된 '청년 가온누리'의 퓨전 밴드가 연주하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대표곡! 배우와 관객이 하나 되어 부르는 노래와 관객이 직접 무대 위에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공연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어린이 국악 뮤지컬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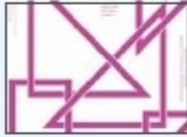
일시	12.21(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전석 7,000원
관람연령	전 연령 (5세 이하 보호자 동반관람)

전통 판소리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국악 뮤지컬이다.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에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국악기 라이브 연주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까지! 전통의 다양한 해석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온 '판소리공장 바닷소리'와 함께 판소리 특유의 해학이 살아있는 공연을 즐겨보자.



부평아트센터 2018 하반기

시즌패키지 가이드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는 기획 공연 작품을 테마별로 묶어 다양하게 선보이며,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티켓 패키지입니다.

시즌패키지 예매방법



엔티켓 enticket
1588-2341 전화예매
(온라인 예매 불가)

※
하반기 시즌 패키지 구매하신 모든 관객에게 부평구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보다'와 '기념품 세트'를 드립니다.

- 예매수수료
예매건당 1,000원 고객부담
- 패키지 상품 구매 후
취소 및 환불 가능(부분 취소 불가)
- 1개 이상 공연관람 이후
취소 및 환불 불가
- 공연 일정 변경 :
해당 공연 하루 전 오후 5시
(하루 전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오후 5시)
- 공연일정 변경 시,
해당 공연의 좌석이 매진일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야장애석은
패키지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 각 공연의 티켓 상황에 따라 일부
패키지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브런치 패키지

세 작품 모두 선택 시
30% 할인



달콤한 클래식
<Muse, 그가 사랑한 여인>
9.20(목)



달콤한 클래식
<권태기, 아찔한 현기증>
10.25(목)

달콤한 클래식
<가족, 하나로 연결된 끈>
11.22(목)

대배우 패키지

두 작품 모두 선택 시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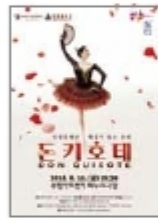
연극
<봄날>
7.27(금)



연극
<영영이별 영 이별>
11.16(금)

아티스트 패키지

두 작품 모두 선택 시
30% 할인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8.10(금)



우수클래식
<김선옥 피아노 리사이틀>
9.6(목)

스포츠라이트 패키지

두 작품 모두 선택 시
30% 할인



송년음악회
<이은미 콘서트>
11.28(수)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12.13(목)~15(토)

자유 패키지

2018 하반기 기획 공연 중,
5작품 이상 선택 시

40% 할인

스페셜 얼리버드 할인

7.20(금)까지
2018년 하반기 시즌패키지 구매 시

추가 **10%** 할인

부평구문화재단

Liberty

2018 동호회
창출·활성화
사업

'스스로' 즐길 수 있어
더욱 행복한 '생활문화활동'

문화즐기기

프로그램 수강생모집

01. 생활문화 :
실용적인 생활문화
가정에서 생활문화
가정에서 생활문화
가정에서 생활문화

02. 생활문화 :
실용적인 생활문화
가정에서 생활문화
가정에서 생활문화
가정에서 생활문화

03. 생활문화 :
실용적인 생활문화
가정에서 생활문화
가정에서 생활문화
가정에서 생활문화



동호회 창출·활성화 사업 <문화즐기기>

'스스로' 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한 '생활문화활동'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주민이 직접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생활문화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나아가 동호회를 창출하여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생활을 넘어서
'스스로'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한 '생활문화활동'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영일시 및 장소

스케치	캘리그래피	오카리나
7.3(화)~10.2(화) - 매주 화요일 10:00~12:00(총 13회) - 프로그램실 2	7.3(화)~10.2(화) - 매주 화요일 14:30~16:30(총 13회) - 프로그램실 2	7.4(수)~10.17(수) - 매주 수요일 10:00~12:00(총 19회) - 연습실 2
하모니카	뮤지컬	포크 댄스
7.4(수)~10.17(수) - 매주 수요일 10:00~12:00(총 19회) - 연습실 1	7.5(목)~10.4(목) - 매주 목요일 18:00~21:00(총 11회) - 연습실 1	7.4(수)~12.26(수) - 매주 수요일 10:00~12:00(총 23회) - 오픈스페이스
폴리네시아안 댄스		
7.10(화)~12.18(화) - 매주 화요일(성인 오전반) 11:00~12:30 (총 18회) - 연습실 1	7.11(수)~12.19(수) - 매주 수요일(성인 오후반) 19:00~20:30 (총 18회) - 연습실 1	7.11(수)~10.10(수) - 매주 수요일(키즈 홀라반) 16:00~17:00 (총 10회) - 연습실 2

운영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체 험 료 무료

신청문의 032-500-2069

2018 부평생활문화축제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이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지역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활문화동호인들이 그 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공연과 전시가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풍성한
축제가 진행될 것입니다. 2018 부평생활문화축제를 통해 1(일)상을 6(유)쾌하고
8(팔)팔하게 즐기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10.12(금)~10.14(일)
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 부평대로 일대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문의 032-500-2069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소개



돈든한 후원, 부평구문화재단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후원회 신청방법

- ① 방문신청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② 우편신청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③ 신청문의 032-500-2084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기업/개인	해누리 (5천만 원)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2회)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2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4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50%)	평생회원
	달누리 (2천만 원)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1회)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3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1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3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40%)	
	꽃누리 (1천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2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2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별누리 (5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개인	구름 (3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5년
	외 (1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6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5년
	가람 (5십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3년
기본예우	홈페이지 후원자·기업명 표기, 홈페이지 후원회 페이지 운영 (소식 업데이트), 해누리 공연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후원회 카드 발행		

후원해주시는 분들

달누리	외
최도현 대원인물(주) 대표이사	최창석 (주)은성산업 대표
	권복환 1급부평자동차공업사 대표
꽃누리	맹익재 (주)클라이젠 대표이사
노태손 썬크빅문고 대표	해남영 (재)세종문화회관 팀장
성낙경 (주)한밭기술 대표이사	이혜민
서태호 (주)난다 고문	박육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무 (주)하온아텍 대표이사	강경애 리디안 우물헬레
이희재 (주)우성아이비 대표이사	오케스트라 고문
정규형 의료법인 한길안과 이사장	박경윤 세무그룹토은 대표세무사
이경환 (주)비에이치 대표이사	박창호 (주)인영자동차공업
이광복 동서식품(주) 대표이사	대표이사
조덕형 (주)덕성그린텍 대표이사	박영식 부평단위농협 감사

별누리	가람
홍종국 삼한여객 대표	신희식 아침을여는사람들 대표
박홍식 (주)부평역사 대표이사	윤대기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함국종 (주)부원산업 대표	안중영 정수미크론 대표
최주송 (주)대경아이스 대표	신종백 심정1동
배정태 더페이스샵 대표	주인자치위원회 고문
김용택 온세계교회 GVC 목사	심수연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
최백경 (주)경인 대표이사	조정애
이승희 (주)두진금형 대표이사	박영옥 삼우환경 대표
기종현 (주)연우 대표이사	오중석 (주)한국통운 대표이사
심수일 (주)상정가스공업 대표이사	한유순
김성국 거궁 대표	정지연 (주)광원건설 회장
	이계찬 (주)자인조경 대표이사
구름	김유완 관세법인 사인 관세사
박인덕 (주)상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황영희 가현텍스 세무사
이용진 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 이사	윤일영 의회사무국장
배수진 (주)승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고동희
전봉운 (주)부평환경 대표이사	고현영 안국노무법인 대표
한재현 (주)동일환경 대표이사	곽경전
안용현 (주)한국그린환경 대표이사	정하주 유한광고 대표
민병현 (주)평화환경 대표이사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정혜자 (주)삼원환경 대표이사	신미영 디자인넷 대표
권영조 (주)영대칼바리오 대표이사	
정광훈 유카스에너지 대표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회원&문화나비 가맹점 소개



시민회원&문화나비 가맹점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회원과 문화나비 가맹점은

정기 후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시민회원&문화나비 가맹점 신청방법

1. 시민회원

- 방문신청 :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우편신청 :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2. 문화나비 가맹점

- 방문신청 :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3. 신청문의

032-500-2084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시민회원	연 12만 원 (월 1만 원 이상)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30% 할인 / 1인 10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8매
	연 6만 원 (월 5천 원 이상)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30% 할인 / 1인 4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4매
	연 3만 원 (연간납부)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30% 할인 / 1인 4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2매
문화나비 가맹점	연 36만 원 (월 3만 원 납부)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30% 할인 / 1인 10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8매 - 문화나비 가맹점 현판 부착

※ 연례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개(비공개 신청 가능)

후원해주시는 분들

시민회원

강은숙	강장희	강지미	공현정	권진희	김경민	김대운	김명희
김미진	김소희	김유정	김종수	김종필	김종식	노철환	류대희
맹효재	박건호	박귀정	박미연	박자영	박정혁	박지영	박진수
배철홍	서승연	송용일	신소영	안효정	엄정귀	여건봉	우사라
이경아	이미숙	이미영	이상현	이설아	이소영	이재홍	이혜진
임영희	장정현	정하윤	정하주	정혜림	조병숙	조종혁	조현주
주정연	최인호	최현미	홍승미	황소연			
*비공개 25명							

문화나비 가맹점

백두산 참숯화로구이	부일정육식당	해주막국수
바우네 나주곰탕	순가락 반상 마실	월드인슈
커피마마	밀레	유카스에너지 열우물점
코코 돈까스	(주)인영자동차공업사	

